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교 주변 불량배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오래된 현상이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위급한 사회문제가 되었다¹⁾. 최근 학교 급우들 사이에서 폭력을 행사 하는 사례가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오늘날의 학교는 마치 “혼란과 폭력의 장” 인양 극화된 모습으로 묘사되는 감마저 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회화적으로 표현해준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에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및 공보처 등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해 지자, 정부는 1995년 12월 2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근절종합대책”을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우범 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추진’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당국의 단속활동도 강화되었고, ‘통학로 주변에 정·사복경관배치’, 1996년 6월 3일 경찰, 교육,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로 이뤄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발족하였다.

1) 형사정책연구원,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p.19.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 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속과 처벌이 청소년들의 재범을 유발한다는 입증된 연구결과가 있어²⁾ 또 다른 측면에서 폭력과 범죄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한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행 정부 각 부처나 사회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정확한 실태에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폭력 신고전화’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신고를 하려는 학생이 신고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였다”는 명제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라면 아무리 신고전화를 도처에 설치한다고 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에 대한 주장도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지는 않으나 학교주변 폭력이 야간 10시 혹은 12시 이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범지역이나 유흥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마저 제한할 수 있는 야간통행금지법 역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습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적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소년원 출신 9백 61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저지른 비행으로 무기 또는 유기 징역 등의 징계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년원생 5천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3%가 재범자로 밝혀졌다.

용이나, '우범학생 명단통보와 특별관리'와 같은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인권침해시비, 예비검속 등 입법론상 중대 한 문제가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도 배치된다.

모든 예방대책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에 근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에 입각한 대책이라고 해도 과학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했거나 실태와 원인을 무시하고 세워진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결과(특히,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행 학교폭력을 다루는 대응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한다.

둘째,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을 고찰한다.

셋째,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연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주된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주된 학교폭력의 동기, 주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한다.

넷째, 학교폭력의 주요 대처방안과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방향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구동향 및 주요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행 학교폭력을 다루는 대응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의 현황과 최근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연구서 및 관련 서적, 문화관광부 및 통계청 등에서 발간된 자료를 참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도별, 유형별, 동기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국내문헌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학교폭력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으로서 총 154편이었다. 이들 자료는 연도별 연구논문 현황, 분야별 연구논문 현황, 그리고 연구논문의 이론적 접근 경향으로 나누어서 조사·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논문은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조사 분야의 논문 63편중에서 31편의 논문이 사용되었다. 각 논문은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조사내용 가운데 공통되거나 분석의 논리상 타당하고 필요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도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 폭력의 주된 동기나 이유, 폭력의 주된 발생장소, 폭력의 주된 유형 등의 7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사되었다.

(4)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고찰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예방·지도·대책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 51편이 사용되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 연구상의 문제점, 예방 및 근절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대책은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및 또

래문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법·제도,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이다.

(1) 시간적 범위

- 1990년에서 1999년까지 발표된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과 관련 서적.

(2) 공간적 범위

- 전국단위나 시·도 및 각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 모두 포함.

(3) 내용적 범위

- 학교폭력분야의 연구논문을 연도, 제목, 저자, 발표지명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 학교폭력의 현황과 최근경향을 고찰한다.
-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을 고찰한다.
-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연도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주된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주된 학교폭력의 동기, 주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한다.
- 학교폭력의 주요 대처방안과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방향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모색한다.

II. 학교폭력의 현황과 최근경향

1. 우리나라 학생범죄의 현황

1) 연도별 현황

우리나라의 1990년대 학생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전체범죄 및 소년범죄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증가 추세가 19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990년도에 52.1%이던 것이 1999년도에는 61.0%로 나타나고 있어 1990년대에 8.9%가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1990년대에 학생범죄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II-1>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90	1,402,417 (77.7)	105,567 (85.0)	7.5	55,026 (66.7)	52.1
'91	1,540,914 (85.4)	102,537 (82.5)	6.7	56,496 (68.5)	55.1
'92	1,542,035 (85.5)	99,301 (79.9)	6.4	57,057 (69.2)	57.5
'93	1,738,952 (96.4)	110,604 (89.0)	6.4	66,074 (80.1)	59.7
'94	1,660,973 (92.1)	108,342 (88.0)	6.5	69,611 (84.4)	64.3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95	1,804,405 (100.0)	124,244 (100.0)	6.9	82,442 (100.0)	66.4
'96	2,018,296 (111.9)	146,986 (118.3)	7.3	91,750 (111.3)	62.4
'97	2,117,759 (117.4)	164,182 (132.1)	7.8	103,292 (125.3)	62.9
'98	2,341,431 (129.8)	161,277 (129.8)	6.9	99,625 (120.9)	61.8
'99	2,400,485 (133.0)	150,821 (121.4)	6.3	91,942 (111.5)	61.0

주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

* 출처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 유형별 현황

1990년대의 학생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는 1990년대 초반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40.0%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도(43.1%)와 1999년도(40.0%)의 폭력범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1990년도가 더 높았다. 절도범죄는 1990년대 초반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반기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1990년대의 절도범죄율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2.8%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2.5%로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기와 1999년대 후반기를 비교하여 보면 1990년대에 강력범죄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기타	
	인원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90	56,496	23,727	43.1	12,275	22.3	1,208	2.2	17,816	37.2
'91	56,496	21,333	37.8	13,410	23.7	756	1.3	20,997	37.2
'92	57,057	20,336	35.6	14,085	24.7	822	1.4	21,814	38.2
'93	66,074	23,286	35.2	14,968	22.7	1,167	1.8	26,653	40.3
'94	69,611	25,143	36.1	17,307	24.9	1,730	2.5	25,431	36.5
'95	82,442	31,491	38.2	18,552	22.5	2,140	2.6	30,259	36.7
'96	91,750	33,071	36.0	19,575	21.3	2,163	2.4	36,941	40.3
'97	103,292	39,732	38.5	21,178	20.5	2,605	2.5	39,777	38.5
'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 출처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3) 동기별 현황

1990년대의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표 2.3>과 같이 대부분 우발적 범행과 이욕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범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도의 경우는 우발적 범행이 27,587명(30.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주의 17,312명(18.8%), 이욕 11,189명(12.2%)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는 유흥비 조달이 3,724명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11-3>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55,024	56,496	57,057	66,074	69,611	82,442	91,750	103,292	99,625	91,942
이 목	소계	5,915	4,644	4,834	5,382	11,628	13,172	16,247	13,346	11,189
	생활비	520	481	619	660	708	617	671	658	707
	유흥비	3,758	2,783	2,836	3,642	5,089	5,169	6,611	4,886	3,724
	허영사치심	1,637	1,380	1,380	1,079	1,045	1,126	1,324	775	404
	기 타	-	-	-	-	4,786	6,260	7,641	7,572	6,344
사행심	1,614	1,139	932	948	655	662	678	711	557	496
원한·분노	1,971	1,674	1,157	1,051	1,013	897	933	1,576	1,085	919
취중(초기심)	-	-	-	-	6,565	8,263	9,638	10,486	8,776	5,737
가정불화	70	78	68	83	76	85	65	57	59	92
유흥	1,033	2,237	1,088	1,618	725	775	852	1,150	1,305	1,092
우발적	18,937	16,180	15,629	16,497	17,400	20,911	21,935	25,821	26,729	27,587
현실불만	-	-	-	-	795	816	1,328	1,825	1,175	1,075
부주의	-	-	-	-	10,540	13,769	15,038	18,203	16,717	17,312
기 타	25,484	30,544	33,349	40,495	20,214	23,092	25,036	30,117	30,022	26,506

주 : 이목란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목 목적 범행

* 출처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최근경향

학교폭력이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학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폭력학생은 폭력과 폭력적인 수단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일반적인 학생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충동적인 성격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는 것도 그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불안하고 불안정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Olweus(1991)는 가해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충동성,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욕, 피해자에 대한 낮은 공감 등을 들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은 폭력과 폭력적 수단의 사용이 다른 일반 학생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충동적 성격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도 그 특성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불안하고 불안정한 의식이 존재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폭력적 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 보면 3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⁵⁾.

첫째, 폭력적 행동을 가진 학생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기는 형태이다.

둘째, 폭력학생이 성장해 온 가정 환경을 보면 주위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적대 감정을 품게 되어 있고 또 감정과 충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는데서 만족과 희열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런 폭력 행동에 대해 '이익요소'가 따른다. 폭력학생은 피해자를 억압해서 돈이나 담배, 술, 기타 귀중품을 바치게 할뿐만 아니라 공격적 행동으로 권위의 보상을 받기도 한다. 또 반사회적이고 규범 파괴적 행동양식을 행하기도 하며 나중에는 범죄와 알콜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3) 오명식, (1997), “근절되어야 할 학교내·외 폭력,” 교육개발, pp.16-17.

4) Olweus, D.(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lter &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 J.; Erlbaum.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 재인용.

5) 이문웅, (1992), “폭력행위의 문화인류학적 배경,”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8-11.

한편,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보다 육체적인 힘에서 열세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그러므로 피해학생들은 육체적인 힘이 약하기에, 인기도 역시 낮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폭력에 대해 보복하지 않아 손쉬운 표적으로 인식된다. 이들의 피해경험의 결과를 보면⁷⁾ 분노와 적개심을 계속해서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면 가해학생과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나 회피적 태도를 보인 학생도 많으며 심지어 정신적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다.

<표 11-4> 폭력피해의 변화추이

내 용	연 도	전 체	남 자		여 자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품갈취	1990년*	22.6	40.7	28.7	8.4	4.2
	1996년	27.6	47.9	28.7	21.3	12.3
폭 행**	1990년	14.1	21.1	24.9	4.2	3.1
	1996년	40.8	56.0	57.8	26.4	21.8
협 박	1990년	15.8	21.5	23.2	10.0	5.5
	1996년	19.4	30.4	23.0	12.4	11.3
성적 피해	1990년	37.8	-	-	32.8	45.8
	1996년	38.7	-	-	28.3	47.6

* 1990년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에 실시된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 중 협박에 관련된 통계수치만 추출한 것임.

** 폭행의 측정방식이 1990년과 1996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6)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18.

7) 표갑수, (1998), “학교폭력의 실태·원인 및 대처방안,” 사회과학논총 제 18집, pp.30-31.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학교폭력의 피해율 변화추이⁸⁾를 살펴보면 <표 II-4>과 같이, 1990년과 1996년 간에 2배 이상의 경험율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조사의 측정방식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에는 “폭행”이라는 단어로써 그 경험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을 택한 반면에, 1996년에는 구체적인 신체적 구타의 지문을 통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는 “폭행”이라는 어의가 지니는 범죄적 심각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구타경험, 또는 가벼운 싸움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90년과 1996년간의 피해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수치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신체적 폭행의 경험 빈도가 지난 6년간 크게 증가하였다고 단정 내릴 수는 없다. 상해위험이 심각한 폭행의 경험율을 가지고서 비교해 볼 때, 1996년의 조사결과 10%가 심각한 폭행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척도의 한계로 인해 폭행의 발생율과 심각성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주변 환경이 상당히 폭력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심각한 폭행이 발생하는 율보다는 가벼운 구타 또는 싸움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지만, 폭력을 상당히 손쉽게 행사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한편, 협박 피해율 또한 지난 6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주된 요인은 남자중학생들의 피해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자고등학생의 피해율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노출이 최근 성별로는 여자,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어릴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성적인 피해는 다른 폭력피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증감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난 6년 동안 성적 피해율은 큰 변동 없이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주

8) 김준호,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국제학술회의, 한국청소년개발원, pp.19-21.

변 폭력이 최근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잠정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증가추세의 주된 요인은 폭력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여학생들의 피해를 증가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폭력문제는 이제 남학생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전과는 달리 여학생들도 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⁹⁾.

둘째, 학교폭력은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가해자학생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같은 동료이자 학우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고도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¹⁰⁾.

넷째, 폭력이 특별한 비행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통 학생 모두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 유형이 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이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점차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각종 범죄나 TV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영향으로 점차 그 형태가 흉포화 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단독으로보다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학생들간의 폭력이 아니라 불량씨클과 연계되고 그 위에는 조직폭력단이 연결되어 조직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¹¹⁾. 예전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 중·고등학생 중심이었으나, 요즘은 그 연령이 연소화 되어 초등학생까지 파급되고 있

9) 정유경, (1996), “학원 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교육진흥 제8권 제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p.6-7.

10) 김종기, (1998), “학교폭력의 대책과 실천방향 1,” 제15차 사회교육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p.29.

11) 권이중, (1997),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교육사회학연구(제7권 제3호), pp.90-91.

는 실정이다.

일곱째, 여학생들 또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대거 등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면 보통 남학생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제는 여학생에게까지 파급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남학생을 능가할 만큼 잔인해지고 있다.

여덟째, 전방화와 육체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금품갈취나 절도, 위협이나 협박은 교실 안, 학교 안, 학교주변 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학원, 전자오락실, 길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품갈취는 학교주변과 전자오락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잠재적 피해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아홉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동시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특성을 지닌다.

열번째, 심리적·정신적 폭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체적인 폭력이나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인 따돌림과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한다거나 숙제 빼앗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²⁾.

열한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고 있다. 또한 등·하교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가거나, 빼앗길 돈이나 흥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교착이고 대항, 항의, 소리지르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¹³⁾.

12) 박옥식, (1997), “학교폭력의 실상과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학회 제1회 학술대회자료집, 학교사회사업학회, p.45.

13) 김장영·양진건, (2000),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Ⅰ),” 제주대학교

Ⅲ. 학교폭력의 연구동향과 연구결과

1. 연구동향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논문(인터넷으로 검색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학교폭력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총 154편이었다.

1) 연도별 연구논문 현황

연도별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7편(4.54%)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 21편, 1997년 45편, 1998년에 44편, 1999년에 37편이 발표되었다. 즉, 1995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기에 학교폭력 관련 논문발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5년과 1996년에 나타난 사회적, 국가적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학교폭력 관련정책으로 인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표 Ⅲ-1>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 연도별 현황

년 도	편 수
1990	1(0.6%)
1991	0(0.0%)
1992	0(0.0%)
1993	1(0.6%)
1994	2(1.2%)
1995	3(1.9%)
1996	21(13.6%)
1997	45(29.2%)
1998	44(28.6%)
1999	37(24.0%)
합 계	154(100.0%)

생활연구 21, pp.131-132.

2) 분야별 연구논문 현황

분야별 연구논문 현황은 <표 III-2>와 같다.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논문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63편으로 40.9%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63편중에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는 3.2%로 아주 미미하였으며, 그나마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된 실태조사는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35.6%)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학교폭력 예방·지도·대책에 관련된 분야로 논문이 51편(33.1%)이었으며,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련된 논문은 40편으로 26.0%를 차지해 가장 적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였다. 즉, 학교폭력의 실태나 예방·지도·대책 관련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앞으로 보다 더 엄밀하고 정확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연구와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표 III-2>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 분야별 현황

내 용	편 수
현황, 실태, 사례	63(40.9%)*
원인, 요인, 영향	40(26.0%)
예방, 지도, 대책	51(33.1%)
합 계	154(100.0%)

* : 63편중에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는 2편(3.2%), 서울·수도권의 실태조사는 23편(36.5%), 지방의 실태조사, 즉 각 지역별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총계는 28편(44.4%), 기타는 10편.

3) 연구논문의 이론적 접근 경향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의 이론적 접근 경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학교폭력의 개념, ②학교폭력의 이론, ③학교폭력의 유형, 그리고 ④학교폭력의 조사대상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개념적 고찰

학교폭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즉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한데,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결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¹⁴⁾. 이들 견해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ulrine(1996)은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이들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이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 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¹⁵⁾시키기도 한다.

14)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3-5.

15)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A., & Wallace, J. M.(199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pp.55-68.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나라보다 학교폭력 문제가 보다 심각한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교행정가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¹⁶⁾.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예를 들어, 심웅철, 1996).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해자의 신분이나 아니냐에 관계없이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받게되는 모든 폭력 피해를 포함시킴으로써(김준호, 1996), 학교폭력의 정의를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¹⁷⁾라고 정의되어지는데, 여기에는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역시 특정행위, 즉 예를 들어서 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를 폭력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6)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1996).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Schools*, 33(1), pp.28-37.

17) Archer, J., & Browne, K.(1989).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pp.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①폭력의 발생장소, ②폭력의 주체 및 신분, 그리고 ③폭력의 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의 개념적 접근 경향

구 분		내 용	편 수
개 념	발생 장소	가정, 학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학생이 당한 모든 폭력피해)	5(12.5%)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9(2.5%)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4(10.0%)
		학교 내 +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16(40.0%)
	신분 및 주체	학생간의 폭력	22(55.0%)
		학생간의 폭력 +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	6(15.0%)
		학생 + 비학생에 의한 폭력	15(37.5%)
	행위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	7(17.5%)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폭력으로 간주	31(77.5%)
	계		40(100.0%)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와 학교 밖(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40.0%), 학생간의 폭력(55.0%),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학교폭력(77.5%)으로 보고 있었다.

(2) 이론적 고찰

학교폭력의 주요이론은 가해자 중심이론과 피해자 중심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 III-4>과 같이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해자중심이론(81.08%)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중심이론만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점차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문제 및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중심이론 둘 다 다룬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는데 그 점유율은 18.9%를 차지하였다.

<표 III-4>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의 이론적 접근 경향

구 분	내 용	편 수
이 론	가해자 중심	30(81.08%)
	피해자 중심	0(0.0%)
	가해자 + 피해자 중심	7(18.9%)
	계	37(100.0%)

(3) 폭력유형의 고찰

학교폭력은 크게 3가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또래집단과 교직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가해자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개인적 폭력과 집단적 폭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셋째는 폭력적인 행동의 내용적 측면에 기초해 보면 신체적인 구타,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기물이나 남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시키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5>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의 폭력유형 분류

구 분	내 용	편 수
유 형	괴롭힘이나 따돌림	24(66.66%)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25(69.44%)
	금품갈취	35(97.22%)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36(100.0%)
	성 희롱이나 폭행	7(19.44%)
	계	36(100.0%)

본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행동의 내용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괴롭힘이나 따돌림,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금품갈취,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성폭행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표 III-5>과 같이 1990년대 연구논문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루는 비중은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100.0%), 금품갈취(97.22%),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69.44%), 성폭행(19.4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구에서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의한 폭력’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수의 많은 연구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연구논문은 그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성인에 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서는 성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그 발생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대체로 성폭력을 제외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사대상의 고찰

학교폭력의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6>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의 조사대상자 분류

구 분	내 용	편 수
조사대상	초등학생	11(28.94%)
	중학생	28(73.68%)
	고등학생	19(50.0%)
	계	38(100.0%)

<표 III-6>과 같이 1990년대에는 대부분 중학생(73.68%)과 고등학생(50.0)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8.95%로 비교적 다른 조사대상자 보다 낮은 편이었다.

예전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 중·고등학생 중심이었으나, 요즘은 그 연령이 연소화되어 초등학생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학교폭력의 문제는 심각하며 점차 학교폭력의 중요 조사대상자로서 인식 및 받아 들여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정도는 <표 III-7>와 같이 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는 포함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7> 학교폭력 피해 현황('98)

(단위 : 명)

구 분 학교별	금품피해 학 생 수		폭행피해 학 생 수	
	교내	교외	교내	교외
초등학교	802	13,673	1,132	4,212
중 학 교	3,063	14,584	2,544	4,921
고등학교	775	3,517	1,124	1,980
계	4,640	31,774	4,800	11,113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 선행연구의 결과

1990년대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논문은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조사 분야의 논문 63편중에서 31편의 논문이 사용되었다. 각 논문은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조사내용 가운데 공통되거나 분석의 논리상 타당하고 필요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31편의 논문은 연도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 폭력의 주된 동기나 이유, 폭력의 주된 발생장소, 폭력의 주된 유형 등의 7 가지 기준에 따라서 비교·분석이 실시되었다.

1) 연도별 결과

(1) 1990년도 결과

1990년도 학생폭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8>과 같이 학교폭력은 주로 주택가나 집 근처(33.7%)에서 그리고 학교 안(25.8%)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학생 중에서 36.1%가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남학생과 중학생의 폭력피해(남자 중학생 56.8%, 여자 중학생 17%, 남자 고등학생 50%, 여자 고등학생 10.5%)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 피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폭력유형은 금품갈취(22.6%)와 협박(15.8%)이었다.

<표 III-8> 1990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피해경험	36.1	-	38.8	32.1	남중 (56.8)	여중 (17.0)	주택가나 집 근처 (33.7), 학교 안 (25.8)	금품 갈취 (22.6), 협박 (15.8)	■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 폭력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3가지로 구분
	a) 가해경험	-	-	-	-	남고 (50.1)	여고 (10.5)			

a) 김준호, (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24-117.

(2) 1995년도 결과

1995년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9>와 같이 1차 설문조사에서는 19만 7천 여명의 학생이 폭행피해를 당했으며, 42만 3천 여명의 학생이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 전체 학생의 7.2%에 달하는 62만 여명이 한 차례 이상의 피해를 봤다. 특히 중학생이 폭행피해와 금품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한편, 2차 설문조사에서도 중학생이 폭행피해와 금품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주된 폭력의 피해유형은 금품갈취였다. 그러나 금품피해와 폭행피해 사항은 1차 설문조사 때 보다 약 90%정도 감소되었다. 이는 시·도교육청 및 관련기관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나 2차 조사기간이 겨울방학중에 실시되어서 겨울방학으로 인한 학생활동의 감소 등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표 III-9> 1995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학 년 별			성 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 장소	주된 폭력 유형	비 고
		초	중	고	남	여				
전 국	금 품 피 해	422,758	93,432	252,190	77,136	-	-			'95.11.1.~ 11.15. 시행 설문조사 자료
	폭 행 피 해	196,782	43,738	103,829	49,215	-	-	-	-	
	가 해 경 험	-	-	-	-	-	-			
	a) 금 품 피 해	34,563	9,510	17,822	7,231	-	-			'95.11.15. ~ '96.2.10. 시행 설문조사 자료
	폭 행 피 해	16,924	4,587	7,604	4,733	-	-	-	-	
	가 해 경 험	-	-	-	-	-	-			

a) 교육부, (1995), 학교폭력근절 및 대책,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자료.

(3) 1996년도 결과

1996년도의 학생폭력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0>과 같이 각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은 주로 이유 없이(43.9%), 돈이나 물건을 갖고 싶어서(42.0%), 그리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

고 싶어서(34.2%) 발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는 주
택가 등의 학교주변과 학교 안이었다.

전체 학생의 폭력피해율은 최소 24.6%(박영관, 1996)에서 최대
73.4%(최귀현, 1996)까지 나타났으며 폭력 가해율은 6.6%(홍재선, 1996)이
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또한 폭력의 가해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폭력의 피해율은 대체로 중학생
에게서 높게 나타났지만 김준호와 김선애(1996)의 연구결과를 보면 초등
학생(49.2%)이 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중학생
(44.0%)이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 피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
하는 폭력유형은 대체로 금품갈취와 폭행이었고, 금품갈취는 유흥비
(53.6%)와 용돈(30.6%)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폭언과 빌려 달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II-10> 1996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 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피해 경험	54.3	-	54.3	-	73.7	31.9	■교내장소 는 운동장(40. 9), 화장실(34. 6) ■교외장소 는 주택가(34. 4), 학교주변(27.8)	■금품갈취 의 폭력방법 은 폭언 (48.1), 빌려달라 는 말로(38.1)	■교내·외 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 중 금품갈취(금품갈취 경험과 보고들은 경험) 1가지만 조사함.
	a) 가해 경험	6.6	-	6.6	-	11.1	1.4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 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피해 경험	28.6	-	-	28.6	21.4	7.19	이유없이(43.9), 건방지다(20.9)	상가 또는 지하도 안 (28.1), 교실 안 (22.9)	폭행(38.3), 금품갈취(36.8)	■교내·외 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 을 3가지, 즉 폭행, 금품갈취, 협박으로 구분
	b) 가해 경험	-	-	-	-	-	-				
서울특별시	피해 경험	57.1	-	61.1	53.4	73.0	40.4	-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은 학교 외에서 가장 많이 발생 ■괴롭힘, 놀림, 욕설, 협박 등은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	신체적 폭력(40.8), 성적피해(38.7), 금품갈취(27.6)	■교내·외 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 을 언어적 심리적 폭력, 신체적 물리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 등의 5가지로 구분
	c) 가해 경험	-	-	-	-	-	-				

a) 홍계선, (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48.

b) 한현규, (1996), “학교폭력 억제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9-96

c) 김준호·박청선·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67-104.

<표 III-10> 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d)	피해 경험	37.6	49.2	44.0	25.7	53.7	21.7	-	주택가 골목길 (17.6), 교실 안 (16.7)	금품갈취 (21.9), 괴롭힘 (17.4)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 3가지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수도권 지역	f)	피해 경험	24.6	-	31.6	15.1	33.2	11.7	돈이나 물건을 갖고 싶어서((42. 0),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34.2)	거리(51.2), 학교(31.5)	금품갈취 (57.1), 언어적 협박 (16.1)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금품갈취, 언어협박, 흉 기위협, 단독 또는 집단적 폭행 등 5가 지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대전광역시	g)	피해 경험	73.4	-	41.1	24.3	42.2	23.1	-	주택가의 골목(35.29) , 오락실 또는 만화방 (24.60)	폭언(88.08) 구타(39.17)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심리적,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기 물파괴 등 10 가지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d) 김준호·김선애, (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pp.45-143.

f) 박영관, (1996),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7.

g) 최귀현, (1996),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39.

(4) 1997년도 결과

1997년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이 각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해학생은 주로 기분 나쁘게 해서(59.9%), 말을 안 들어서(48.3%), 화김에(35.6%), 그리고 충동적으로(20.5%)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는 주택가 등의 학교 주변과 학교 안이었다. 교내에서는 주로 복도나 건물 뒤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교외에서는 대체로 학교근처의 골목길, 오락실이나 유흥가 근처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 학생의 폭력피해율은 최소 17.8%(이경자, 1997)에서 최대 56%(위영원, 1997)까지 나타났으며 폭력 가해율은 최소 16.1%(이경자, 1997)에서 최대 31.5%(표갑수, 1998)이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또한 폭력의 가해경험도 높았다. 폭력의 피해율은 대체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가해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교내·외로 구분하여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외의 피해율이 교내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초등학생은 교내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교외의 피해율과 가해율 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들 피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폭력유형은 대체로 금품갈취와 폭행·협박·구타 등이었다. 초등학생은 주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이 많은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에게서는 금품갈취와 폭행이 주된 폭력유형이었다.

<표 III-11> 1997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

구분	전 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피해 경험	38.9	-	38.9	-	77.8	22.2	학교주변 (23.0), 학교내 (21.5)	금품갈취 (63.7), 놀림·욕설 ·협박 (25.9)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따돌림이 나 괴롭힘, 금품갈취, 놀림·욕설 ·협박, 폭 행, 성희롱 및 추행 등 5가지로 구 분
	가해 경험	-	-	-	-	-	-			
서울특별시	피해 경험	41.3	46.8	39.2	41.2	-	-	학교 안 (19.6), 학교주변 (14.7)	괴롭힘 (35.4), 금품갈취 (29.8)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괴롭 힘 등 3가지 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서울경기지역	교내 피해 경험	25.5	-	33.0	18.0	37.7	11.7	■교내에서 는 이유없 이(41.2), 건 방지다(35.3) ■교외에서 는 이유없이 (74.1), 건방 지다(8.04)	■교내장소 는 복도 (37.3), 건 물 뒤(21.6) ■교외장소 는 학교근 처의 골목 길(75.44), 오락실이나 유흥가 근 처(11.2)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단순폭행 과 금품갈취 로 구분
	교 외 피 해 경험	56.0	-	58.0	54.0	64.2	46.8			
	가해 경험	-	-	-	-	-	-			

a) 김은영, (1997),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pp.33-50

b)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7), 초·중·고등학생 3,2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c) 문정선, (1997), “청소년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pp.15-46.

<표 III-11> 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청주지역 d)	피해경험	43.2	-	43.2	30.0	12.2	충동적으로 (20.5), 잘난 채해서 (19.5)	-	단독 및 집단 구타 (28.5), 물건던지기 및 흥기사용 (20.0)	■ 교내· 외의 폭력 실태임 ■ 폭력유형 을 싸움, 구 타, 공갈협박, 흥기사용, 금 품갈취 등으 로 구분
	가해경험	31.5	-	31.5	24.9	6.6				
부산광역시 e)	피해경험	17.8	-	16.4	19.4	22.1	말을 안들어서 (48.3), 찾김에 (35.6)	학교내 (55.0), 주택가의 골목 (20.0)	폭행(55.3), 금품갈취 (25.1)	■ 교내· 외의 폭력 실태임. ■ 폭력 유 형을 언어 협박, 구 타, 금품갈 취, 성폭행 등 4가지 로 구분
	가해경험	16.1	-	15.9	16.3	20.3				
대구광역시 f)	피해경험	56.0	-	78.2	41.3	73.1	피해자의 생각임. 왜 당했는지 모름 (38.3), 가해자가 불량해서 (21.5)	주택가 노상 또는 골목길 (30.1), 학교 안 (21.0)	금품갈취 (24.4), 폭행 (17.1)	■ 교내· 외의 폭력 실태임 ■ 폭력 유 형을 금품 갈취, 폭행, 위협 및 협 박 등 3가 지로 구분
	가해경험	18.0	-	8.0	10.3	16.0				

d) 표갑수, (1998), “학교폭력의 실태·원인 및 대처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pp.24-28.

e) 이경자, (1997),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경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55

f) 위영원, (1997), “학원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74.

<표 III-11> 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광주광역시	피해 경험	30.0	-	41.8	22.8	24.8	5.1	기분 나쁘게 해서(59.9), 이유없이 (13.1)	학교 안 (46.0), 학교주변 (23.4), 주택가의 골목 (18.3)	금품갈취 (127명), 협박 (123명), 구타폭행 (102명)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금품갈취, 협박, 강탈, 구타, 따돌림, 놀림, 괴롭힘, 성폭행 등으로 구분
	가해 경험	16.2	-	18.3	15.0	14.3	1.9				
진주시	교내 피해	49.3	49.3	-	-	54.3	43.5	-	-	심리적 폭력 (88.0), 신체적 폭력 (37.3)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강탈 등으로 구분
	교 외 피해	13.9	13.9	-	-	16.0	11.2				
	교내 가해	25.7	25.7	-	-	31.1	19.2				
	교 외 가해	11.4	11.4	-	-	13.9	8.3				

g) 노안영, (1997),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대책,” 전남대 학생생활연구 제29집, pp.97-118.

h) 김종미, (1997),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분석,” 초등교육연구 제11집, pp.76-82.

(5) 1998년도 결과

1998년도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이 각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해학생은 주로 건방져서(34.1%), 보복하려고(28.5%), 금품을 갈취(25.4%) 하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금품갈취의 주된 이유는 유흥비(41.4%)와 용돈(21.4%) 마련이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는 주책가, 골목, 등하교 길 등의 학교주변과 학교 안이었다. 교내에서는 주로 교실, 화장실, 운동장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교외에서는 대체로 학교근처의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학원이나 독서실 부근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 학생의 폭력피해율은 최소 13.6%(장명신, 1998)에서 최대 61.8%(임영식, 1998)까지 나왔으며 폭력가해율은 최소 11.3%(장명신, 1998)에서 최대 88.3%(박경길, 1998)이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또한 폭력의 가해경험도 높았다. 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피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폭력유형은 대체로 언어폭력, 금품갈취, 신체적 폭행 등이었다. 초등학생은 주로 심리적·정신적 폭력(언어폭력, 괴롭힘 등)이 많은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에게서는 금품갈취와 신체적·언어폭행이 주된 폭력유형이었다.

<표 III-12> 1998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 특별시	피해 경험	59.1	-	59.1	-	69.6	48.8	■ 금 품 갈 취의 주된 이유는 유 흥비(41.4), 용돈(21.4)	주택가의 골목 (24.3), 학교 안 (24.3)	■금품갈취 의 폭력방 법은 빌려 달라는 말 로 (68.6), 언어적 협 박(21.4)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학교폭력 을 금품갈취 로 제한
	a)가해 경험	21.9	-	21.9	-	24.7	19.1				
서울 특별시	피해 경험	-	-	-	-	-	-	-	-	언어폭력 (83.3), 괴롭힘 (63.2)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괴롭힘, 언 어 폭 력, 금 품 갈 취, 신체적 폭력 등으로 구분
	b)가해 경험	88.3	-	88.3	-	91.7	82.1				
서울 경기 지역	c)가해 경험	68.2	-	72.1	64.0 5	80.3	53.5 3	-	-	-	■교내·외 의 폭력실태 임 ■폭력유형 을 괴롭힘, 파들림, 언 어적 노림이 나 협박, 신 체적 폭행, 금품갈취 등 으로 구분

a) 김정연, (1998),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pp.25-50.

b) 박경길, (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pp.50~54.

<표 III-12> 계속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원 동기나 요인	주원 발생장소	주원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부산광역시	d) 피해경험	12.5 (여)	-	12.5 (여)	-	12.5	-	주택가 (34.1), 학교 (30.7)	-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학교폭력은 폭력피해의 경 험여부로 측정
	가해경험	-	-	-	-	-				
대구광역시	e) 피해경험	40.7	-	40.7	-	-	-	-	금품갈취 (58.4), 언어적 폭력 (52.4)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언어적, 심리 적, 신체적 폭 력, 괴롭힘, 금 품갈취 등 5가 지로 구분
	가해경험	32.5	-	32.5	-	-				
인천광역시	f) 피해경험	23.1	-	46.8	27.0	50.2	-	중학교 길 (59.8), 만화방이나 오락실 (9.8)	■금품갈취의 폭 력방법은 중 (52.2), 빌려달라 는 말로 (38.8)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폭행과 금품갈 취로 제한
	가해경험	-	-	-	-	-				
대전광역시	g) 피해경험	36.5	36.5	-	-	49.0	-	교실 안(43.8), 주택가나 집근처(16.5 3)	괴롭힘(2 0.6)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괴롭힘, 금품 갈취, 구타 등 으로 구분
	가해경험	-	-	-	-	-				

c)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11-15.

d) 권재화, (1998), “부산시 여중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응,” 원광대 석사논문, pp.55-94.

e) 도기봉, (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pp.35-61.

f) 김형일, (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pp.32-36.

g) 허진옥, (1998),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pp.26-48.

<표 III-12> 계속

(단위 : %)

구분		전 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대전광역시	피해 경험	13.6	-	-	13.6	-	-	-	-	신체적 폭행(44.7), 언어폭력(26.3),금품갈취(15.8)	■교내· 외의 폭력 실태임 ■폭력 유 형을 피 롭힘, 욕설 및 폭언, 신체적 폭 행, 금품갈 취 등으로 구분
	가해 경험	11.3	-	-	11.3	-	-				
경상남도	피해 경험	52.0	52.0	-	-	53.6	50.2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28.5), 심심해서 장난(23.1)	교실(51.2), 운동장 (12.43)	놀림(40.0), 구타(18.34)	■교내의 폭력 실태 임. ■폭력 유 형을 놀림, 괴롭힘, 따 돌림, 구타 등으로 구 분
	가해 경험	65.8	65.8	-	-	76.0	55.0				
경상남도	피해 경험	37.5	-	38.3	35.4	50.4	26.0	-	교실 안(28.73), 공터나 오숙한 곳(13.82), 운동장 등 학교안 (12.0)	-	■교내· 외의 폭력 실태임 ■폭력 유 형을 괴 롭힘, 폭 행, 금품갈 취, 협박으 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경상북도	피해 경험	-	-	-	-	-	잘난척하고 건방져서(34.1), 금품갈취(25.4)	■교내장소는 화장실(37.1), 운동장(30.5) ■교외장소는 오락실·만화가게부근(40.1), 학원이나 독서실 부근(26.7)	-	■교내·외의 폭력 실태임. ■폭력 유형을 폭행과 금품갈취로 구분
	가해 경험	26.1	26.1	-	-	28.4	23.5			

h) 장명신, (1998),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63.

i) 성종근, (1998), “초등학교폭력 아동의 행동특성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pp.25-53.

j) 김기훈, (1998),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pp.41-60.

k) 남만희, (1998), “초등학교학생이 지각한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pp.27-56.

(6) 1999년도 결과

1999년도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3>과 같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주로 유흥비(41.4%)와 용돈(21.4%)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갈취를 행하는데, 주로 언어적 협박이나 빌려달라는 식의 폭력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금품갈취가 발생하는 주된 장소는 학교주변이 58.3%로 나타나 학교 안의 14.2%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학생의 폭력피해율은 최소 26.9%(김진숙, 1999)에서 최대 58.9%(이상균, 1999)까지 나왔으며 폭력의 가해율은 최소 11.6%(이상도, 1999)에서 최대 63.5%(이상균, 1999)이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

있으며, 또한 폭력의 가해경험도 높았다. 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피해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폭력유형은 대체로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등이었다. 대체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심리적·정신적 폭력(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이 많이 나타났고 그 피해도 높았다.

<표 III-13> 1999년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결과

(단위 : %)

구분	전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서울특별시	a) 피해 경험	38.0	-	47.4	28.3	44.4	29.9	-	-	■교내의 폭력 실태임 ■폭력유형을 괴롭힘, 언어적 심리적 폭력(58.0), 금품갈취(57.4) 등으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			
서울특별시	b) 피해 경험	58.9	-	67.8	51.1	67.9	48.9	-	-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학교폭력을 놀림, 따돌림, 협박이나 위협, 신체적 공격, 금품갈취로 구분
	가해 경험	63.5	-	69.5	58.1	74.3	51.3			

구분	진 체	학년별			성별		주된 동기나 요인	주된 발생장소	주된 폭력유형	비고
		초	중	고	남	여				
부산광역시	피해 경험						-	-	신체적 폭력(33.3), 금품갈취 (28.3)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폭력유형을 육살, 따돌림, 협박, 폭행, 금 품갈취로 구분
	가해 경험	20.9	20.9	-	-	28.1	12.7			
울산시	피해 경험	49.5	-	49.5	-	-	■금품갈취의 주된 이유는 유흥비(43.7), 용돈 (35.1)	학교주변 (58.3), 학교 내(14.2)	■금품갈취의 폭력방법은 빌려달라는 말로(13.0), 언어적 협박(5.1)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학교폭력을 폭력과 금품갈취로 제한
	가해 경험	11.6	-	11.6	-	-				
경상북도	피해 경험	26.9	-	-	26.9	34.9	-	-	협박이나 강요(24.91), 물리적 폭행(17.4)	■교내·외의 폭력실태임 ■학교폭력을 괴롭힘, 협박, 물리적 폭행, 금품갈취로 구분
	가해 경험	-	-	-	-	-				

a) 이병기, (1999), “학교조직풍토와 학교내 폭력과의 관계연구,” 한국의국어대 석사학위논문, pp.35-41.

b)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63-77.

c) 이수화, (1999),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분석,” 부산교육대 석사학위논문, pp.25-45.

d) 이상도, (1999), “중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pp.30-54.

e) 김진숙, (1999),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4-56.

2) 지역별 결과

1990년대 학교폭력에 관련된 연구에서 조사된 각 지역의 전체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여 보았다.

먼저, 지역별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4>와 같이 서울의 평균이 4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폭력피해율의 평균값인 42.4%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모든 평균값은 전국 각 지역의 평균값보다 모두 낮았다. 이는 서울지역의 학교폭력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41.7%), 대전·충남(41.5%), 대구·경북(41.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지역은 서로 비슷한 학교폭력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경기(34.6%)와 광주·전남(30.0%)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폭력피해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1990년대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에서는 보다 더 도시화·광역화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4> 지역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피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F-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피해율	지역별	서 울	10	47.0	0.4641
		부산·경남	6	41.7	
		대구·경북	3	41.2	
		인천·경기	3	34.6	
		대전·충남	4	41.5	
		광주·전남	1	30.0	
전 체			27	42.4※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학교폭력피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5>와 같이 서울의 평균이 49.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폭력 가해율의 평균 32.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서울지역의 폭력 가해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28.0%), 대구·경북(25.5%), 대전·충남(21.4%), 광주·전남(16.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각 지역의 폭력 가해율은 모두 다 전국 각 지역의 폭력 가해율 평균값보다 낮았다.

대체적으로 1990년대의 연구논문에서는 보다 더 도시화·광역화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율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5> 지역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가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F-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가해율	지역별	서 울	5	49.7	0.8967
		부산·경남	5	28.0	
		대구·경북	3	25.5	
		대전·충남	2	21.4	
		광주·전남	1	16.2	
전 체			16	32.8※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학교폭력가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3) 성별 결과

1990년대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여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6>과

같이 남학생의 평균이 51.8%로 여학생의 27.1%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1990년대의 연구논문에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율이 더 심각하고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 성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피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피해율	성 별	남 자	25	51.8	5.51***
		여 자	25	27.1	
	전 체		50	40.0%	

※: 각 연구에서 조사된 남·여 학교폭력피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7>과 같이 남학생의 평균이 40.1%로 여학생의 26.0% 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1990년대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에서는 남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율이 여학생들보다 더 심각하고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성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가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가해율	성 별	남 자	13	40.1	2.31*
		여 자	13	26.0	
	전 체		26	33.0※	

※: 각 연구에서 조사된 남·여 학교폭력가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4) 학급별 결과

1990년대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학급별(초·중·고등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여 보았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8>과 같이 중학생의 평균이 48.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생(46.0%), 고등학생(3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1990년대의 연구논문에서는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율이 고등학생들 보다 더 심각하고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학급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피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F-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피해율	학급별	초등학생	5	46.0	5.8116**
		중 학 생	19	48.2	
		고등학생	17	33.0	
전 체			41	41.6※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초·중·고등학교 폭력피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다음으로, 학급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19>와 같이 초·중학생의 폭력 가해율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29.2%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즉 1990년대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에서는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율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9> 학급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가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F-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가해율	학급별	초등학생	4	34.6	0.0798
		중 학 생	10	34.5	
		고등학생	6	29.2	
전 체			20	32.9※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초·중·고등학교 폭력가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5) 폭력유형별 결과

1990년대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폭력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폭력유형은 크게 '신체·물리적 폭력'(신체적 폭력, 금물갈취, 흉기나 무기사용 등)과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괴롭힘, 따돌림, 욕설, 놀림, 협박 등)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폭력유형별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20>과 같이 '신체·물리적 폭력'의 평균피해율이 45.1%로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의 4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1990년대의 연구논문 중에서 '신체·물리적 폭력'을 다룬 연구논문의 폭력피해율이 더 심각하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20> 폭력유형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피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피해율	폭력유형별	신체·물리적 폭력	9	45.1	0.72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	18	41.0	
전 체			27	42.4※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학교폭력피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율의 검정결과를 보면 <표 III-21>과 같이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의 평균 가해율이 40.9%로 '신체·물리적 폭력'의 19.3%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1990년대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 중에서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을 다룬 연구논문에서 폭력 가해율이 더 심각하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폭력유형별에 따른 1990년대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폭력가해율

변 수			빈 도	평 균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폭력가해율	폭력유형별	신체·물리적 폭력	6	19.3	2.26*
		신체·물리적 폭력 + 언어·심리적 폭력	10	40.9	
		전 체		16	

※: 각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학교폭력 가해율을 합산한 총합으로부터 구한 값.

6) 기 타

1990년대 학교폭력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표 III-22>와 같이, 41.7%의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핫김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유홍비나 용돈마련’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33.3%를 차지하였다. 즉 학생폭력은 대부분 우발적 폭력과 이욕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폭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장소는 학교주변이 63.2%, 학교 안이 36.8%로 나왔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주변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주된 유형은 ‘신체·물리적 폭력’이 65.4%, ‘언어·심리적 폭력’이 34.6%로 나타났다.

<표 III-22> 1990년대 학교폭력의 주된 이유, 발생장소, 그리고 폭력유형

구 분		빈 도	백분비
폭력의 주된 이유(동기)	이유 없이	3	25.0%
	유홍비, 용돈 마련	4	33.3%
	충동적으로 핫김에	5	41.7%
계		12	100.0%
폭력의 주된 발생장소	학교 안	7	36.8%
	학교주변	12	63.2%
계		19	100.0%
폭력의 주된 폭력유형	신체·물리적 폭력	17	65.4%
	언어·심리적 폭력	9	34.6%
계		26	100.0%

한편, 1990년대 학교폭력의 주된 폭력유형을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별로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표 III-23>과 같이 학교 안에서는 ‘언어·심

리적 폭력'(57.1%)이 '신체·물리적 폭력'(42.9%)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주변에서는 오히려 '신체·물리적 폭력'(83.3%)이 '언어·심리적 폭력'(16.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의 연구결과¹⁸⁾와 그의 일치하는 것으로 이 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폭행, 괴롭힘, 따돌림, 놀림, 욕설 등의 폭력은 대체로 교실 안에서 발생하였으나 금품갈취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놀이장소, 학원, 독서실, 주택가 등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표 III-23> 1990년대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장소에 따른 주된 폭력유형

변수	값	신체·물리적 폭력	언어·심리적 폭력	계	χ^2	DF
폭력의 주된 발생장 소	학교 안	3 (42.9%)	4 (57.1%)	7 (100.0%)	3.6110*	1
	학교주변	10 (83.3%)	2 (16.7%)	12 (100.0%)		
계		13 (68.4%)	6 (31.6%)	19 (100.0%)		

3. 선행 연구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1990년대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논문을 연도별, 지역별, 성별, 학급별, 폭력유형별, 그리고 기타 등에 따라 살펴보았다. 각 연구의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¹⁹⁾은 있지만 이들 연구논문의

18) 안선옥·김사라·김성미, (1998), “청소년폭력 관련자료 비교분석,”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pp.11-12.

19) 각 연구에 따른 차이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폭력유형의 구분, 폭력발생장

주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학교주변과 학교 안이었으며 폭력유형에 따라 주된 폭력의 발생장소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에서는 '언어·심리적 폭력'이 '신체·물리적 폭력' 보다 높은 반면에 학교주변에서는 오히려 '신체·물리적 폭력'이 '언어·심리적 폭력' 보다 높았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김준호·박정선·김은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은 학교주변이나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괴롭힘, 놀림, 욕설, 협박 등의 폭력은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은 대부분 우발적 폭행과 이욕(유홍비, 용돈 마련 등) 그리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즉 학교폭력의 주된 동기는 이유도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갖고 싶어서, 화김에, 그리고 충동적으로 등이었는데, 특히 금품갈취의 동기는 유홍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학교폭력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는 남학생과 중학생이었다. 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의 연구결과²⁰⁾와도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폭력피해 및 가해문제도 심각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넷째, 학교폭력은 교내·외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피해 및 가해

소의 제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폭력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으로 학교폭력의 조사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특정 혹은 일부분 학생집단만을 선정했는가 아니면 모든 학생집단을 다 포함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즉 폭력유형 중에서 신체적·물리적 폭력만 다루었는가 아니면 심리적·정신적 폭력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장소를 학교 안으로만 제한했는가 아니면 학교 안과 학교주변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각 연구의 차이점은 각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각 연구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20) 안선옥·김사라·김성미, (1998), 전계서, pp.6-7.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외의 피해율이 교내의 피해율(문정선, 1997)보다 더 높은 반면에 초등학생은 교내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교외의 피해율과 가해율(김종미, 1997)보다 더 높게 나왔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당한 주된 폭력유형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언어·심리적 폭력이었다. 초등학생에게서는 특히 언어·심리적 폭력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중·고등학생에게서는 신체적 폭력과 금품갈취가 높게 나왔다. 그러나 점차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언어·심리적 폭력(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기관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따돌림, 놀림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중학생은 신체적 폭행과 음주, 흡연, 본드흡입 강요가 심각하고, 고등학생은 신체적 폭행과 시험부정행위, 숙제강요 등의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협박과 같은 폭력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중·후반기에는 점차 언어·심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괴롭힘(김준호·김선애, 1996; 최귀현, 1996)과 성폭력(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을 다룬 연구는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곱째,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 놀림, 욕설 등과 같은 언어·심리적 폭력에 의한 증가로 보여진다. 즉 1990년대 중·후반기에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언어·심리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를 포함시킨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앞에서 제시된 <표 II-2>와 <표 II-3>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표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절도범죄와 금품갈취의 주된 동기인 유흥비 마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덟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중반기부터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연구(교육부, 1995)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반기에는 점차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종미, 1997; 허진옥, 1998; 성종근, 1998; 남만희, 1998; 이수화, 1999)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홉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폭력피해만을 조사·측정하였으나 중·후반기에는 폭력피해와 폭력가해를 모두 조사하는 연구(홍재선, 1996; 이정자, 1997; 위영원, 1997; 노안영, 1997; 표갑수, 1998; 임영식, 1998; 도기봉, 1998; 장명신, 1998; 이상균, 1999; 이상도, 1999)들이 많이 나왔으며, 또한 폭력가해만을 조사하는 연구(박경길, 1998; 남만희, 1998)들도 나왔다.

열 번째, 1990년대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장소로 학교 안과 학교주변으로 보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그 연구결과는 학교 안과 밖으로 분리하여 조사·측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학교 안과 밖으로 분리한 연구결과(문정선, 1997; 김종미, 1997)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정한 연구(성종근, 1998; 이병기, 1999)들도 나왔다.

IV.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조사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990년대에 발간된 학교폭력의 예방·지도·대책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 51편이 사용되었다.

1. 학교폭력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 1995년 12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폭력피해 신고함 설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학생선도 및 피해상담 강화, 사회봉사 명령제 도입, 학교담당 검사제 도입, 학교 주변 취약지역 방범초소 증설, 유해환경업소 정화 및 단속, 우범학생명단 통보,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5~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집단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은 더욱 성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폭력이 일시적인 단속과 징벌위주의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해 준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예방중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기존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①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②학교폭력 연구상

의 문제점, ③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과 수치감,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인데, 학교폭력이 단기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릴 경우 불안은 공포감으로 발전을 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노는 더 심화되고 표출된다²¹⁾. 이에 이들은 학교결석, 학교내 특정 장소의 회피, 가출, 자살 등 회피·철회·탈출의 반응을 보인다. 또는 자기방어나 보복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²²⁾.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197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력피해 학생 중 56%는 학교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15%는 다칠 것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 중 29%가 자기보호와 보복을 위해 학교에 무기를 가져간다고 대답했다²³⁾.

2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폭력은 싫어요-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p.23-24.

22) 이상균, (1999), 전개서, pp.23-24.

23)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78). *Violent Schools-Safe Schools*. Vol.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이상균, (1999), 전개서, p.23, 재인용.

<표 IV-1>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나이	육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	행동적 문제	발달적 문제
13 ~ 18 세	·야뇨증 ·복통 ·두통 ·심한 여드름 ·습식장애	·낮은 자긍심 ·외로움과 격리 ·극도의 불안 ·근심, 두려움 ·철회 ·표현을 하지 않음 ·특히 감정과 관련된 표현을 하지 않음 ·감정의 차이가 없음 ·다른 사람을 욕함	·매우 폭력적 ·범죄행동 ·자기파괴-학대, 난잡한 성행위, 자해, 자살 시도, 비행, 위협을 줄김 ·가출 또는 집으로 부터 도망감 ·문제해결 방식으로 폭력행사 ·이성교제시 폭력 사용	·학업성취가 낮음 ·무단결석, 중도탈락 ·미성숙 ·좌절내성 결여 ·친구가 거의 없음

이러한 피해학생들의 학교결석, 학교활동의 회피,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Hoover, Oliver, & Hazler(1992)은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90%가 학교성적의 저하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²⁴⁾. 또한, 학교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며 세대를 거쳐 반복되기도 한다. Olweus(1991, 1993)에 따르면,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23세 성인들의 경우 다른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후 추적결과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60%가 24세 때까지 최소 1번씩 기소되었으며, 35~40%는 3번 이상씩 기소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들어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24)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13. pp.5-16.

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비율은 18.1%,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상이 33.3%, 입원이 6.5%, 사망이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정신적 피해를 보면 불안감이 56.1%, 등교거부가 11.3%,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3.2%, 자살시도가 0.5%, 자살이 0.6%로 조사되었다²⁵⁾. 또 이시형 등(1997)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증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도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해 재단법인 일본학교 보건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지메’로부터 파생되는 문제행동으로 등교거부가 92.6%, 정신장애가 46.0%, 가정폭력이 42.6%, 자살충동이 12.9%, 가출이 6.6% 등 피해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상의 문제로서 피해망상이나 심신증, 심기증, 침묵증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⁷⁾.

2) 연구상의 문제점

학교폭력의 연구과정상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①학교폭력 개념정의에 관련된 문제, ②학교폭력 이론적용상의 문제, ③학교폭력 유형분류의 문제, 그리고 ④학교폭력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련된 문제들 등인데,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조사했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 주된 연구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전게서, p.68.

26) 이시형·이세용·정현희·김형주, (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97-7호, 이상균, (1999), 전게서, p.24, 재인용.

2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전게서, pp.228-233.

첫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용어의 혼란과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한데,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결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와 학교 밖(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40.0%), 학생간의 폭력(55.0%),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학교폭력(77.5%)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 학교폭력은 대부분 가해자 중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주요이론은 가해자 중심이론과 피해자 중심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해자중심이론(81.08%)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중심이론만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너무나 상이하고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연구논문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루는 비중은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100.0%), 금품갈취(97.22%),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69.44%), 성폭행(19.44%)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구에서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의한 폭력'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수의 많은 연구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연구논문은 그 점유율이 비교적 매우 낮은 편이었다.

네 번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파악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나 예방·지도·대책

관련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엄밀하고 정확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연구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학교폭력의 조사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의 조사연구는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35.6%)에 치우쳐 있었고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는 3.2%로 아주 미미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연구와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예방 및 근절대책의 문제점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각종 대책이 정부부처에서 제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에 이미 교육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공보처 등에서 각종 대책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청소년폭력예방

재단, 1996; 안상훈, 1996; 임정섭, 1996;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김병일, 1998; 조호대, 1998; 이한선, 2000 등)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대처방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기존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의 사전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피해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²⁸⁾. 이는 기존대책의 근저에는 '가해-피해의 이분법적 구도'하에서 '소수의 가해자-다수의 피해자'로 학교폭력을 인식·파악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소수의 불량학생들이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생활양식이나 기타 요인들이 피해유발과 관련이 있다면,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등으로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별이 모호하고, 오히려 '동일성 원리'가 강하며, 한 개인에게 피해와 가해가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러한 구도는 잘못된 출발인 것이다²⁹⁾.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출발점의 관점이 주로 피해자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⁰⁾. 공권력을 통해 문제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하여 사법처리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도는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역담당검사제, 우범학생

28) 임정섭, (1996), "미국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전략," 「보호」, pp.63-83.

29)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거서, pp.208-211.

3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예방에서 대책까지," (서울: 한울림), pp.176-179.

명단 통보, 우범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통학로 주변 정·사복경관배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그리고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책의 기본 골자는 거의 대부분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가려내어 법 적용과 처벌을 엄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처리 절차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행과 같은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처리 절차가 선도·예방위주의 절차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라는 당위적인 가치는 차지하고서라도,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을 처벌과 통제를 위해 드는 비용과 장기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처벌위주의 사법절차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러한 대책마저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6년에 언론에 학교폭력이 보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내려진 후 각 부처에서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으나 그 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물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수그러드는 기색을 보였으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 동안의 각종 대책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이나 비행 또는 다른 이유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했거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푸른 교실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도 그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2. 학교폭력의 대책

학교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이다. 가해·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유관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학교나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가정·학교·유관기관·지역사회·정부의 각 방면에서 청소년문제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는 문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련된 대책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박성수, 1996; 권이종, 1997;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표갑수, 1998 등)에서 제시되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련된 주요대책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해학생의 경우는 예방의 차원에서 정서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훈련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³¹⁾. 또한 진단학습센터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동료 개별교사제 등을 통하여 학업실패가 학교 부적응과 좌절·소외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공격성이 강화된 가해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분노통제 및 공감훈련 등 감정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도덕 가치교육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여된 사회적 및 대인관계 기술의 훈련을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³²⁾. 흔히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이해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경우 폭력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인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가해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괴롭힘'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가해학생들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회적 기술수준을 좀더 높이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훈련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 치료로서 이들이 결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가해학생들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공식처벌을 통한 선도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사법적 처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처음부터 그대로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는 일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또한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계와 협조 하에서 각종

31)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 개서, pp.217-219.

32) 박성수, (1996),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pp.143-146.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피해학생의 경우는 등·하교시에 위험지역을 피하고, 용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혹은 고가의 유명브랜드 생활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를 하는 등 사후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고작이고 대항, 항의, 소리지르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의 폭력문제를 제외하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폭력발생 이후에도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여주고, 자칫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학생간의 관계를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피해학생들에게 상호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생들 사이에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³³⁾. ‘짝체계(buddy system)’나 ‘큰형(big-brother)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여러 명이 함께 귀가하고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지 않는 등 동료나 선후배간에 서로 지지하고 보호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급단위에서의 소규모의 학습 및 활동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학교폭력의 표적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학생조력자를 연결시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할 수 있다.

33) 표갑수, (1998), 전계서, pp.44-45.

2) 친구 및 또래문화에 관련된 대책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그 이전의 발달시기에 비해 친구의 수가 더욱 많아지며, 개인 시간의 반 이상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해 친구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혼자서가 아닌 소수의 친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친구관계, 특히 비행친구는 폭력형성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친구관계를 통해 폭력 학생은 폭력행동을 모방하고, 이를 근거로 폭력행동을 발전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나쁜 친구를 사귀는 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이 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친구들이 싸우지 않거나 적게 싸울수록 학교폭력의 정도는 낮아졌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친구관계나 그들의 또래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며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이중한, 1992; 이용교, 1992; 이창연, 1996 등)에서 제시되었던 친구 및 또래문화에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건전한 친구관계와 또래문화의 형성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이를 육성·지원할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된다³⁴⁾. 아

34) 이창연, (1996), "학교폭력 그 원인과 대책은," 충북교육 123, pp.66-67.

이들은 성인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 현상이 또래집단 사이의 문화나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과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 등의 주어진 역할들로 여가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여가활동의 유형도 대부분 소극적이고 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열된 입시경쟁과 규제 및 금지정책의 원인,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쉬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터전의 부재로 말미암아 청소년활동이 양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³⁵⁾. 기성세대는 청소년문화활동의 유형을 이해하고 자생력 있는 뿌리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통념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의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고 청소년들의 활동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자발적이고 창의적 활동으로 전개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자율적 영역을 주면서, 그들의 존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 청소년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 자신의 입장에서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제도적으로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어야 한다³⁶⁾.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

35) 이용교, (1992),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pp.99-103.

36) 이중한, (1992), “청소년 문화정책의 개발,”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pp.241-244.

여를 기초로 하는 소규모 집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집단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집단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집단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권한 이양 등으로 실질적인 청소년의 자발적 행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가정과 관련된 대책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김종기, 1999; 이상균, 1999; 김정옥·장덕희, 1999; 지광준, 1999 등)에서 제시되었던 가정과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발생시 가정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강제해야 한다³⁷⁾. 폭력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적 성격이 강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제도의 조치시, 가해학생 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해 부여된 징계 시간 중 일정비율의 시간 동안 부모 또한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이해 및 부모-자녀관계의 수정을 위한 상담활동을 통해 왜곡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아울러 자녀가 행한 잘못에 대해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다.

두 번째, 자녀가 잘못하면 학부모도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학부모 동반 처벌법안」을 제정하였으면 한다³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1996

37) 이상균, (1999), 전개서, pp.119-121.

38) 지광준, (1999), “학교폭력의 현상과 그 대책,”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3집, p.251.

년 소년범 재판과정에서 “비행원인이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방법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제도」를 소년법 개정시 도입하기로 검토한 바 있다.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뉴저지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단속 못한 죄 값을 톡톡히 받는다. 그들은 「학부모 동반 처벌법」에 의해 자녀가 잘못하면 피해배상, 벌금, 소양교육을 받게된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자녀양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함을 들어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발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 후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역동적 가족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³⁹⁾. 가정, 학교, 친구 등 주위 생활환경 요인들은 사실상 비행에 대한 대책에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가정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부모가 양육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교정노력만을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정도가 높았다. 실제 비행에 대한 각종연구 및 상담결과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적절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소속감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좌절되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각종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거나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은 폭력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 지도의 여러 기술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

39) 김정옥·장덕희, (1999),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99-1 연구보고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pp.72-73.

나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차원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공감훈련 등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⁴⁰⁾. 부모들은 가정교육에 힘써 건전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일관된 규율로 자녀들을 다스리며, 적절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녀를 대할 때 애정으로 대하되 지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학교와 관련된 대책

현행 지식 주입식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에 대한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교사를 비롯하여 교장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현행 교직인사제도는 학교주변 폭력이 더 음성화되는 것을 부채질한다. 학교 명예의 실추 또는 관리지도 책임 소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오히려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덮어두려는 현행 관행에서 탈피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정태, 1997; 표갑수, 1998; 나병현, 1999; 지광준, 1999; 김장영·양진건, 2000 등)에서 제시되었던 학교와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는 철저한 경쟁심만을 부추기는 성적위주의 교육관행에

40) 김종기, (1999), "학교폭력의 실태연구와 대처방안," 제2회 청소년폭력예방 직무연수교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p.17-18.

서 벗어나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한다⁴¹⁾. 오늘날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것은 대학입시 등 경쟁사회에서 남을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남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공부나 성적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뚤어진 정서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바로 이제까지 이러한 ‘피-가학적 심성’을 강화시켜 왔던 학교환경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에서의 폭력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의 실시, 상담 및 신고전화의 상시운영,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확고하고 명료한 교칙의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사의 자질과 훈련 역시 청소년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⁴²⁾. 즉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폭력을 많이 당하는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정도가 높고, 교사와 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사 자질의 체계적 관리는 교육의 성패에 있어서 핵심적 요인인 것이다. 교사가 존경받지 못한다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다면, 교육적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거나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공격적 관리기술, 학생들과의 정서적 유대 훈련 및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와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⁴³⁾. 소규모 학급, 소규모 학교

41)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계서, pp.221-222.

42) 전정태, (1997), 전계서, pp.212-213.

43) 나병현, (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8호, p.215.

에서는 비행행동이 확실히 적다(Goldstein, A. P. et. al., 1984 : 208). 따라서 학생과 교사간에 좀더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규모와 학급규모를 더욱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한 30명 이하가 될 때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이 가능하며, 또한 한 학교 당 학생수도 줄여서 교사-학생간, 학생상호간 좀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폭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때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학교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상담교사를 더 많이 보충하고 효율성이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⁴⁴⁾. 교육부는 1986년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의 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임용하여 학교 부적응 문제와 교육병리현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통학교(초·중·고)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상담교사가 1명 이상 임용되어, 상담·출석·진학·상벌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상담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학교상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 상담교사제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사회사업제도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⁴⁵⁾. 현재 미국, 일본, 홍콩 등의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복지기획단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1997~1998년까지 6개교(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3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1999년의 평가를 거쳐 2000년~2002년까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생지도를 위한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학교폭력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요의제로 다루

44) 지광준, (1999), 전계서, p.250.

45) 표갑수, (1998), 전계서, p.49.

46) 김장영·양진건, (2000), 전계서, p.141.

고 학교의 특성별(학교주변환경·학생들의 가정환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로 전문가와 사회 및 청소년단체의 인사로 구성되는 학생지도자문위원회 설치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교사들의 학생지도자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와 관련된 대책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윤가현, 1996; 권이중, 1997;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김충남, 1997; 정홍배, 1997 등)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사회 및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환경과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정비해야 한다⁴⁷⁾.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못하여 대학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사소한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문제학생이 된다. 현행 학교의 처벌위주의 관행은 문제학생의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은 학교로부터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다. 학생들이 건전히 뛰어 놀 장소나 여가시설이 부족한 세상에서 출세할 가능성이 없는 초기 낙오자들에게 도처에 널려진 수많은 유흥향락업소는 좋은 도피처가 된다. 집과 학교에서 추방된 학생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모이고, 이들은 패거리를 이루어 서서히 범죄로 다가간다. 학교주변 폭력 중 금품갈취의 주요 원인은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유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즐비하다.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과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 향락적 분위기와 유해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47)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계서, pp.223-225.

를 바랄 수는 없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 성인들에 의해서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성을 지니면서 계속하여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그 동안 국가 기관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해환경 정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나 시민단체의 활동도 한계성을 지니면서 실제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흥·숙박업소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과감하게 정비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기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⁴⁸⁾.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것으로는 청소년카드(Youth Card)제의 조속한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자강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연극·영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관람하는데 사용한 청소년카드의 사용실적을 점수화하여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및 여가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⁴⁹⁾.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스트레스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자연히 엉뚱한 곳에서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을 선도하기 위해 앞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

48) 정홍배, (1997), “조기예측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연구원교육논문집 19, pp.275-276.

49) 권이종, (1997), 전계서, p.98.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매스컴과 인쇄물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해야 할 것이다⁵⁰⁾. 신문·라디오·TV·잡지 등은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면보다는 성인 중심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프로그램과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스컴의 청소년 선도 기사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각종 독서물의 개발보급과 여러 가지 학술문예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적·사회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란 폭력성 영상이나 인쇄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사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⁵¹⁾.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총량적인 국가성장정책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구가하였지만, 이로 인해 개인주의, 물질우선주의 등의 역기능도 양산하였다. 이러한 토양을 개선하여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소방안에 도움이 되며,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회복을 위한 운동의 전개가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사회인들은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들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면만을 들추어내어서 꾸짖지 말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감싸고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며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50) 윤가현, (1996), “음란폭력간행물이 청소년의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음란 폭력간행물과 청소년의 폭력문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pp.27-29.

51) 김충남, (1997), “학교주변폭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pp.85-86.

6) 유관기관과 관련된 대책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설사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인력과 예산문제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억제 및 범죄예방은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전담되고 있는데 각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⁵²⁾. 지역사회는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주민들간의 상호교류를 확대시켜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을 높이게 되고 이웃감시, 시민순찰, 정보제공 등에 의한 사법기관과의 친밀한 협력을 통해서 각 개인과 가정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는 안정과 범죄의 감소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⁵³⁾.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최인섭, 1996; 김충남, 1997; 정홍배, 1997; 성낙현, 1998; 지광준, 1999 등)에서 제시되었던 유관기관과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찰에서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당국과 학교범죄 관련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⁵⁴⁾. 될 수 있는 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며 학교와 경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한다. 특히 학교내의 폭력조직과 학교 외의 퇴학생, 재수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지역불량 폭력집단과의 연계를 차단시키고

52) 성낙현, (1998), "소년비행과 학원폭력의 원인과 대책," 영남법학 제4권 제 1·2호, pp.135-136.

53) 최인섭, (1996),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보호」, p.84.

54) 지광준, (1999), 전개서, p.252-255.

이들 집단을 해체시키도록 철저히 경찰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⁵⁵⁾. 학교폭력집단이 어울리기 쉬운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단속하거나 가두보도(街頭輔導)를 통하여 사고 발생을 억제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찰의 단속강화는 학교주변폭력이 빈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폭력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폭력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현재의 경찰인력을 감안할 때, 단속의 방법으로는 경찰의 방법활동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학부모를 위시한 민간인의 방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은퇴한 노인들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의자를 배치하여 앉아 있음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순찰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각 파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현장체험과 연계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취약시간대에 학교주변의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찰이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학교 당국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방지에 관하여 부모와 교사간의 협의회 활동 등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하여 폭넓은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과 학교와의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 변호사회 등의 민간단체와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유해환경정화에 있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시민단체의 시민감시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좋지 못한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계의 자율규제와 최소한의 법률규제만으로는 완벽하게 성과를 올릴 수 없어 업계의 자율규제와 법 규제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55) 김충남, (1997), 전개서, pp.87-88.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시민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감시운동을 확산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YMCA, 종교단체, 경찰력 등이 실시하는 ‘향락문화 추방운동’이라든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지킴이 활동’,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와 연관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등을 지역사회에서 추방하는 사업으로 개선·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7) 법·제도와 관련된 대책

1993년 1월 1일을 기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관계법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는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청소년관계법령들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령이 입법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산발적으로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어의 불명확성과 상이성, 법률의 적용상 중복성, 누락, 형평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존의 법규의 엄격한 집행으로 가능한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법령에 미비 되어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내용들이 현행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애매모호하거나 법적 실효성의 뒷받침이 어려운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이돈희, 1996; 나병현, 1996;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 등)에서 제시되었던 법·제도와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폭력예방 대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⁵⁶⁾. 현재의 법과 제도가 형사제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선도를 그 기본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폭력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학교폭력방지 관련 특별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⁵⁷⁾이 있었고⁵⁸⁾, 최근에는 임종석 의원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와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⁵⁹⁾」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폭력 예방 및 방지 특별법안⁶⁰⁾」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도에 대한 도입의 찬반논의⁶¹⁾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청소년비행 예방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통행금지법에 대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200여개의 도시 중 146개의 도시)에서 이 법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56)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게서, p.227.

57) 이협위원의 주도로 구상되었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폭력학생을 선도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는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과 폭력학생의 선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는 ‘특별교육원’ 또는 ‘특별학급’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8) 나병현, (1996), 전게서, p.221.

59) 200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의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규제나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중재기구를 통해 조율과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0) 이 법은 “청소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생활의 안전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문화환경 속에서 맘껏 뛰놀고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의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0).

61) 청소년통행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비행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야간 통행금지법의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도 46개의 도도부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비단 이러한 종류의 특별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교사나 학교당국, 교육청, 경찰의 대처방안과 제재내용까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법을 보면, 학생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학교에서의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방법(징학이나, 제명, 손해배상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1990). 이러한 규정들은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금지되고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방지의 효과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 형사사법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비행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특히 체포-연행-구금과정에서 범집행자의 재량권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을 성급하게 형사절차과정으로 내몰기 전에 지역사회단체를 비롯, 유관단체와 보호자에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은 물론 법의식의 발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⁶²⁾.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학교교육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견지에서 각급 학교로 하여금 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 교육은 주로 법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헌법의 해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교과서 내용이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이 강의식 위주인데다 입시준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62) 이돈희, (1996),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pp.11-13.

현실이다. 이러한 건지에서 법 관련 교육과정의 개편, 현실과 연계되는 교과서 내용구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법에 대한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학교풍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교육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 청소년 비행문제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법 교육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다.

8) 정부와 관련된 대책

정부에서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발표하였다⁶³⁾. 그 내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생활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 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학교폭력추방대책 본부 구성,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추방대책반을 구성·운영 및 종합장학 실시,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고센터 설치·운영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폭력방지활동 추진, 둘째 장기적 대책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손가정, 학력부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가정·사회가 연계되어 3위 1체제의 지도체제 구축과 폭력 근절의 교육풍토 쇄신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성교육의 강화, 학부모교실 운영과 명예교사, 상담지원봉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학교선도와 단체활동을 결성·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

63) 정부는 1995. 12. 2일 학교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64) 전정태, (1997), 전개서, p.216.

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예방활동을 기하기 위해 범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2>와 같다⁶⁵⁾.

종합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의 6가지 중 3가지는 가정과 학부모의 문제로, 두 가지는 학교의 문제로, 남은 한가지는 유해환경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의 통일과 법 정신에 부합하는 운용방안의 수립, 현대사회에 걸 맞는 학교교육제도의 정립, 유해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정립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른 대책안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업무에 혼란만을 야기하고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학생지도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학생의 명단을 검·경에 통보하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만을 전제로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의 조치는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65) 권이중, (1997), 전계서, pp.98-99.

<표 IV-2> 소관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 중점 추진 사항

주 관 부 처	중 점 추 진 과 제	협 조 부 서
문화체육부 (현 문화관광부)	■청소년유해환경정화대책 총괄·조정 ■청소년유해매체 단속 및 심의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청소년 건전 도서·비디오 보급운동 ■청소년봉사활동 및 단체활동활성화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홍보활동 ■청소년부모교육 실시 ■청소년도덕성회복운동 및 국민의식개혁운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계 전 부처 정보통신부, 공보처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공보처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정비 ■무단 구인광고 단속	시·도, 교육청 시·도 노동부
법무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음란·폭력성 유해매체에 대한 제재 강화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교육청, 경찰청, 시·도
교육부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학교별 학생폭력전담교사 지정 ■학교 폭력예방 자원봉사연합회 구성 ■학교 폭력추방 캠페인 전개 ※ 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추진대책에 반영 동시 추진	문화체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문화체육부, 교육청, 경찰청
정보통신부	■음성정보서비스, PC통신 심의 강화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유흥업소 자율정화·단속활동 강화 ■숙박업소 단속강화 ■청소년약물치료, 재활병원 건립추진	시·도, 경찰청 시·도, 경찰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대중매체의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1990년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련된 연구논문(한현규, 1996; 권이중, 1997; 전정태, 1997; 정홍배, 1997; 조호대, 1998 등)에서 제시되었던 정부와 관련된 주요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의 재정적 지원 체제에서 개인의 치료 쪽으로 그 관심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재활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종합 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⁶⁶⁾.

3. 기존 대처방안의 요약

이상에서 1990년대 학교폭력의 주된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①폭력피해의 사전예방대책, ②가해학생을 위한 단속과 처벌대책, 그리고 ③처벌 이후의 사후관리대책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대책의 추진방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예방은 공격성 강화를 억제하고 폭력유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폭력피해의 사전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전략은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즉 미국의 대응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출발점의 관점이 주로 피해자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66) 정홍배, (1997), 전제서, p.275.

다. 가해자에 대한 심성교육, 기술교육, 재활지원 등의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전략들이 매우 다양하다⁶⁷⁾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 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속과 처벌이 청소년들의 재범을 유발한다는 입증된 연구결과가 있듯이 청소년문제를 선도위주가 아닌 퇴학, 제적 등 처벌위주로 다루는 분리·도태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폭력과 범죄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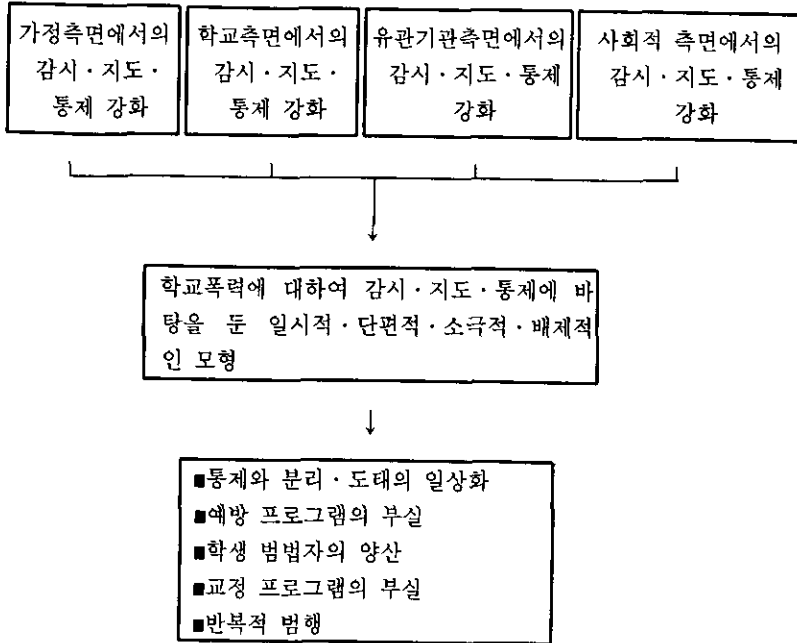
세 번째, 처벌 이후의 사후관리대책은 일종의 교정으로서 문제학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가령, 이들을 위한 행동수정요법 또는 훈련과정의 개발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⁶⁹⁾. 즉 현행 제도 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대처방안은 선도·예방프로그램 보다는 주로 일시적·단편적·소극적·배제적인 단속과 처벌위주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67) 임정섭, (1996), 전계서, pp.6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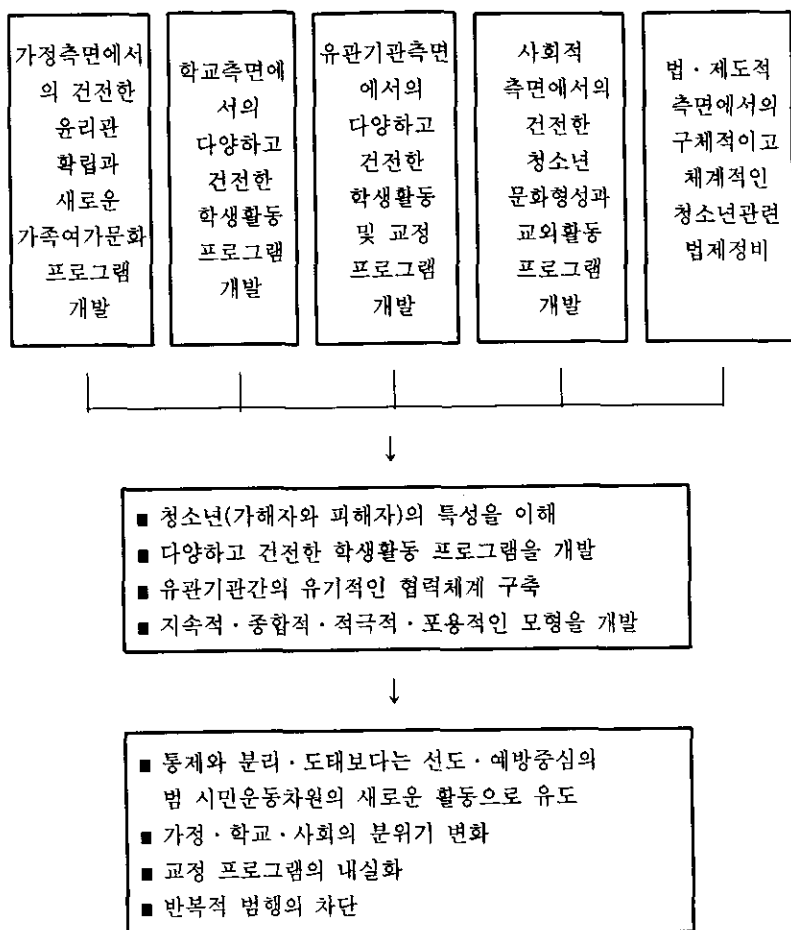
6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전계서, pp.176-179.

69)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전계서, pp.208-227.



<그림 IV-1> 학교폭력의 일시적·단편적·소극적·배제적인 대처방안

위의 <그림 IV-1>과 같이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학생들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범법학생들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단속과 통제위주의 접근전략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수정이 요구되며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즉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점차 1990년대 후반기에 선도·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지속적·종합적·적극적·포용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고 제시되었는데, 그 새로운 대처방안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학교폭력의 지속적·종합적·적극적·포용적인 대처방안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행 학교폭력을 다루는 대응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학교폭력의 최근경향과 연구동향을 고찰하였고, 둘째,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셋째, 학교폭력의 주요 대처방안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방향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모색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방법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역담당감사제, 우범학생명단 통보, 우범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통학로 주변 정·사복경관배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그리고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은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넷째, 폭력이 특별한 비행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통 학생 모두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 유형이 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이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점차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곱째, 여학생들 또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대거 등장하고 있다.

여덟째, 전방화와 육체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아홉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동시성이 나타나고 있다.

열 번째, 심리적·정신적 폭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이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기에 논문발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995년과 1996년에 나타난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학교폭력 관련정책으로 인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분야별 연구논문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40.9%, 학교폭력 예방·지도·대책에 관한 연구가 33.1%,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26.0%이었다. 즉,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지도·대책에 관련된 분야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에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의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와 학교 밖(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40.0%), 학생간의 폭력(55.0%),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도 학교폭력(77.5%)으로 보고 있었다.

둘째,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해자중심이론(81.08%)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중심이론만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점차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문제 및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중심이론 둘 다 다룬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는데 그 점유율은 18.9%를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논문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루는 비중은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100.0%), 금품갈취(97.22%),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69.44%), 성폭행(19.44%)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1990년대에는 대부분 중학생(73.68%)과 고등학생(50.0)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8.95%로 비교적 다른 조사대상자 보다 낮은 편이었다.

다섯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협박과 같은 폭력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중·후반기에는 점차 언어·심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섯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중반기부터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반기에는 점차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곱째, 199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폭력피해만을 조사·측정하였으나 중·후반기에는 폭력피해와 폭력가해를 모두 조사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며, 또한 폭력가해만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나왔다.

여덟째, 1990년대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폭력의 주된 발생장소로 학교 안과 학교주변으로 보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그 연구결과는 학교 안과 밖으로 분리하여 조사·측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학

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학교 안과 밖으로 분리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정한 연구들도 나왔다.

이들 연구논문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학교주변과 학교 안이었으며 폭력유형에 따라 주된 폭력의 발생장소도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은 대부분 우발적 폭행과 이욕(유홍비, 용돈 마련 등) 그리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는 남학생과 중학생이었다.

넷째, 학교폭력은 교내·외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피해 및 가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당한 주된 폭력유형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언어·심리적 폭력이었다. 초등학생에게서는 특히 언어·심리적 폭력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중·고등학생에게서는 신체적 폭력과 금품갈취가 높게 나왔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수적·양적 증가에 비해 연구의 질적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또한 그 연구의 방법이나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기되는 주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용어의 혼란과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한데,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결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학교폭력은 대부분 가해자 중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너무나 상이하고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파악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연구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조사연구는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의 6가지 중 3가지는 가정과 학부모의 문제로, 두 가지는 학교의 문제로, 남은 한가지는 유해환경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의 통일과 법 정신에 부합하는 운용방안의 수립, 현대사회에 걸 맞는 학교교육제도의 정립, 유해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정립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른 대책안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업무에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선도·예방위주보다는 주로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위주였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학생들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범법학생들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단속과 통제위주의 접근전략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수정이 요구되며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1990년

대 후반기에 선도·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처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주된 대책의 추진방향 및 흐름을 ①사전예방대책, ②단속과 처벌대책, 그리고 ③사후관리대책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피해의 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 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위주보다는 선도·예방위주의 새로운 대처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소수의 가해자를 줄이는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대책마저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위한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 가정, 사회, 경찰, 각종 청소년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공동적인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2.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모든 예방대책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에 근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에 입각한 대책이라고 해도 과학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했거나 실태와 원인을 무시하고 세워진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정책적 방향과 대처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피해의 예방대책은 가해자 중심의 가해자를 줄이려는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를 줄이려는 보호·예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불안감 등의 정신이상이나 등교거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학교적응을 위한 대책보다는 대부분 가해자 중심의 단속과 처벌위주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이나 처벌은 피해학생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폭력피해 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은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즉 미국의 대응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출발점의 관점이 주로 피해자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심성교육, 기술교육, 재활지원 등의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전략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책의 기본 골자는 거의 대부분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가려내어 법 적용과 처벌을 엄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통해 문제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하여 사법처리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도는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즉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처리 절차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푸른 교실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도 그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셋째,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교폭력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각종 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언론에서 학교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도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내려지면 각 부처에서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다. 그러나 조금 잠잠해지거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 동안의 각종 대책은 호지부지되고 말았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의 통일과 법 정신에 부합하는 운용방안의 수립, 현대사회에 걸 맞는 학교교육제도의 정립, 유해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정립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른 대책안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업무에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학교·가정·NGO·사회·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설사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인력과 예산문제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관련 연구의 질적 향상과 조사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나 폭력유형의 분류 및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각 연구자의 관심과 기준에 따라 너무나 상이하게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신뢰성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상이한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혼란스럽고 다소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정도를 측정하는 구체화·세분화된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개발과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백서 2000」을 살펴보면 가해(청소년·학생범죄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고 있으나 주된 범죄(비행)발생장소와 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5), 학교폭력근절 및 대책,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자료.
- 권이중, (1997),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교육사회학연구(제 7권 제3호).
- 권재화, (1998), “부산시 여중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응,”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김기훈, (1998),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1997),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김장영·양진건, (2000),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Ⅰ),” 제주대학교생활연구 21.
- 김정연, (1998),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장덕희, (1999),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99-1 연구보고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종기, (1998), “학교폭력의 대책과 실천방향 1,” 제15차 사회교육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김종기, (1999), “학교폭력의 실태연구와 대처방안,” 제2회 청소년폭력예방 직무연수교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김종미, (1997),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분석,” 초등교육연구 제11집.
- 김준호, (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 폭력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국제학술회의,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김선애, (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숙, (1999),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
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남, (1997), “학교주변폭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 김형일, (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
위논문.
- 나병현, (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8호.
- 남만희, (1998), “초등학교학생이 지각한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
방안,”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1997),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대책,” 전남대 학생생활연구
제29집.
- 도기봉, (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
사학위논문.
- 문정선, (1997), “청소년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
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1995), 청소년백서.
- , (1996), 청소년백서.
- , (1997), 청소년백서.
- , (1998), 청소년백서.
- , (1999), 청소년백서.
- , (2000), 청소년백서.
- 박경길, (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
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 (1996),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박영관, (1996),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식, (1997), “학교폭력의 실상과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학회 제1회 학술대회자료집, 학교사회사업학회.
- 성낙현, (1998), “소년비행과 학원폭력의 원인과 대책,” 영남법학 제4권 제1·2호.
- 성종근, (1998), “초등학교폭력 아동의 행동특성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 안선옥·김사라·김성미, (1998), “청소년폭력관련자료 비교분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오명식, (1997), “근절되어야 할 학교내·외 폭력,” 교육개발.
- 위영원, (1997), “학원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6), “음란폭력간행물이 청소년의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음란폭력간행물과 청소년의 폭력문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경자, (1997),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 (1996),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이문웅, (1992), “폭력행위의 문화인류학적 배경,”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 (1999), “학교조직풍토와 학교내 폭력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도, (1999), “중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수화, (1999),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분석,” 부산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 이세용 · 정현희 · 김형주, (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 97-7호.
- 이용교, (1992),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중환, (1992), “청소년 문화정책의 개발,”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창연, (1996), “학교폭력 그 원인과 대책은,” 충북교육 123.
-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 임정섭, (1996), “미국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전략,” 「보호」.
- 장명신, (1998),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 (1996), “학원 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교육진흥 제8권 제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정홍배, (1997), “조기예측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연구원 교육논문집 19.
- 지광준, (1999), “학교폭력의 현상과 그 대책,”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3집.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폭력은 싫어요-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예방에서 대책까지,” 서울: 한울림.
- 최귀현, (1996),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섭, (1996),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보호」.
- 표갑수, (1998), “학교폭력의 실태·원인 및 대처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 한현규, (1996), “학교폭력 억제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옥, (1998), “대전지역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형사정책연구원,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재선, (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cher, J., & Browne, K.(1989).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A., & Wallace, J. M.(199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13.
-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1996).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Schools, 33(1).
-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78). Violent Schools-Safe Schools. Vol.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 Olweus, D.(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lter &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 J.; Erlbaum.

<부록>

학교폭력 관련 문헌목록

1. 학위논문

	논문명/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위
1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다애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혜연	강남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3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 연구/ 이혜숙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4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김영길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방안 연구 : 경기북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황연실	대전대 교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6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학교폭력의 또래 공격성 및 또래 희생성과의 관계/ 이상훈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7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수환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8	청소년의 학교 폭력 실태와 대책방안 연구/ 장윤희	단국대 행정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9	학교폭력,왕따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 이병두	연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10	중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위보환	순천대 교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11	학교폭력의 계열별 차이에 관한 연구 : 구리·남양주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석완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12	초등학교 학교 폭력 실태 분석 및 대책/ 임지영	부경대 교육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13	학교폭력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재환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2001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위
14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 / 이한선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15	학교주변 폭력 행위에 관한 일 연구 :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재승	고려대 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16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임정홍	서원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17	초등학교아동의 폭력성향과 가정환경의 상관성 연구/ 이충원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석사)
18	문제해결기술훈련과 심성수련훈련의 효과 비교 :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주섭	연세대 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19	청소년 학교폭력의 요인연구/ 이은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0	학교폭력에 관한 의식 및 폭력 실태 : 예산군 초, 중,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이재순	순천향대 산업정보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1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차광수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2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명호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강정권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4	중학생의 성별,학년별 및 가정환경변인별 학교폭력경향성 연구 / 최경호	동아대 대학원	2000	학위논문 (박사)
25	학교주변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배주원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6	마산·창원 지역 중학생의 학교 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학생들의 폭력 경험과 인지를 중심으로/ 박미경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위
27	학교 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 진교진	승실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8	교육환경 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학 교폭력을 중심으로/ 조성자	수원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29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 처방식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박선영	승실대 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0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 구 : 목포 지역 중학생들을 중심으 로/ 박갑성	성결대 사회개발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1	중·고등학생의 재환경 요인이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 도권 중·고등학교와 지방 중·고등 학교와의 비교분석 / 이창수	국민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2	학교폭력 피해의 실태와 대책 / 신은영	대구효성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3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학교 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원주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 이상덕	상지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4	학교생활이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 향/ 민유기	청주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5	학교폭력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 는 영향/ 유홍열	인천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6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김진숙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7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정 락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8	중학생들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연계성/ 윤성근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39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중·고생의 학교폭력 실태를 중심 으로/ 박기민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위
40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지도의 차이/ 서정남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4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불안에 관한 연구/ 홍승혜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4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박용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4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박소춘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0	학위논문 (석사)
44	학교폭력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김지은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45	여학생 학교폭력의 실태와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김정인	신라대 여성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46	중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 울산광역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이상도	울산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47	학교조직풍토와 학교내 폭력과의 관계 연구 : 서울 시내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병기	한국의국어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48	일부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그와 관련된 불안 및 우울/ 신웅철	인제대 보건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49	초등학교 폭력아동의 행동특성 연구 / 성종근	경남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0	익산시 여중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응/ 권재화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1	學校暴力에 關한 實態 研究: 대전광역시 인문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 장명신	공주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 위
52	소외와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 이경아	한국교원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3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 도시와 농 촌지역을 중심으로/ 류세홍	한국교원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4	大田地域 初等學生 學校暴力 實態調 査 研究/ 허진옥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5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중학생의 사 회적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손원경	동아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방 안 연구/ 유정남	전남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7	교사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 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 신정남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8	學校暴力이 우리나라 高等學生의 自 我 正體感에 미치는 影響/ 이상진	고려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59	인문계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신희균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0	學校暴力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에 關한 研究/ 조호대	동국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1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이상균	서울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박사)
62	靑少年 學校暴力의 實態 및 原因에 關한 研究/ 김병호	대구효성가톨릭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3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 분석 / 이수화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4	부모의 훈육방법을 통해서 본 학교 폭력의 가해경험에 관한 연구 : 중 등학교를 중심으로/ 송효섭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 위
65	태권도 운동이 중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송철섭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6	학교 청소년폭력의 요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임선애	단국대 교육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7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도기봉	대구대 대학원	1999	학위논문 (석사)
68	初等學校 學校暴力 實態 知覺에 대한 學生, 學父母, 教師간의 견해 차이/ 박노일	대구효성가톨릭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69	학교폭력과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백진범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0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학교 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 방안/ 남만희	영남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1	學校暴力의 實態와 對策에 關한 研究/ 장재식	영남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2	TV 시청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양천구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최진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3	학교 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의 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김기훈	고려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4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박경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5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형일	인하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6	中學校에서의 學校暴力에 關한 研究 / 김정연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77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동훈	동국대 불교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 위
79	교사와 학생의 학교폭력문화 재생산 실태 분석/ 민양기	경북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0	중학생 폭력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 한 연구/ 최병란	경기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1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의식 및 실태 에 관한 연구/ 김진홍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2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 한 연구/ 정지민	숙명여대 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3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 안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복지사업 가의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윤기중	평택대 사회개발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4	靑少年의 學校暴力에 關한 研究 / 정선경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5	日本漫畫가 學校暴力에 미치는 影響 에 관한 研究/ 김은경	송실대 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6	아동의 학교폭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에 관한 연구 : 부모 개입을 위한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강현주	송실대 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7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사업의 개입마 련을 위하여/ 김은영	송실대 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8	학교 폭력의 실태 분석/ 이경자	경성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89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 책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문정선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90	학교폭력의 가정환경적 발생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권장환	건국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논문명/저자명	대학	학위년도	학 위
91	學校暴力의 要因과 對策에 관한 研究/ 이천영	수원대 행정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9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양성목	홍익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93	중등학교의 폭력에 관한 고찰 / 이철호	경남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94	학교폭력실태 조사연구 : 충남지역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나선숙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1998	학위논문 (석사)
95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사업적 개입마련을 위하여 / 이희영	송실대 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96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연구 :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김영식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97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98	학교관련요인이 청소년폭력에 미치는 영향/ 김현정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99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재선	홍익대 교육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100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 박영관	고려대 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101	학교 폭력 억제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 연구/ 한현규	국민대 교육대학원	1997	학위논문 (석사)
102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 대전광역시 중고생을 대상으로/ 최귀현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1996	학위논문 (석사)
103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폭력 Video 영화 접촉과 공격성 간의 관계/ 양윤정	서울여대 대학원	1994	학위논문 (석사)

2. 학술논문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1	학교폭력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집부 編	2001	오늘의 청소년 157(20013)pp32-33
2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을 위한 사이코드라마/ 조성희 · 최철환	2000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3(20001)pp25-40
3	학교폭력 방치해선 안 된다/ 신순갑	2001	시민과변호사 85(20012)pp12-17
4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 신성웅 外	2000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20001)pp124-143
5	학교폭력에 관한 일 연구/ 孫錫英 · 權純達	2001	동덕여대인문과학연구 7(20013)pp305-325
6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내의 폭력을 중심으로/ 권이중	2000	청소년학연구 72(200011)pp1-37
7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김준호 · 김선애	2000	한국청소년연구 31(20006)pp89-110
8	학교주변 폭력의 대책/ 김선애	2000	나사렛논총 5(20002)pp309-334
9	학교 폭력 예방지도 실천사례/ 진창욱	1999	전북교육 11 (" 9912)pp36-42
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진혜경 外	1999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2 (" 997)pp158-168
11	교사 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도현심 · 신정남	1999	이화여대교과교육연구31 (" 995)pp36-52
12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 I / 김장영 · 양진건	2000	제주대학생활연구21 (20002)pp125-144
13	學校暴力 예방 및 근절 指導 대책/ 이길중	1999	교육연구 363 (" 9910)pp110-114
14	학교폭력(學校暴力)의 현상과 그 대책 / 池光準	1999	강남대논문집 33 (" 998)pp237-263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15	성공한 쿠데타 학교 탈출 : 획일·폭력으로 갈 데까지 간 공교육 거부하고 나의 삶 찾 은 10대들/ F 金恩男	1999	494(" 99415)pp18-21 0
16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 아정체감과의 관계/ 이상진·정옥분	1999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11(" 996)pp73-87
17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임영식	1998	청소년학연구 53 (" 9811)pp1-26
18	학교폭력 청소년의 원조방안에 관한 연구 / 홍봉선	1998	청소년학연구 51 (" 982)pp113-135
19	學校内外 暴力實態와 예방적 지도방안 / 손용호	1999	학교경영 122 (" 992)pp110-113
20	學校暴力의 原因과 實態에 관한 考察 / 姜東旭	1999	법조 516(" 999)pp170-203
21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학교-경찰 연계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세정	199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 9811)pp216-258
22	韓國社會의 學校暴力 現實과 그 對策 : 學 校教育의 病理學的 觀點에서/ 심 순	199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 (" 9712)pp119-143
2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도기봉	1999	사회복지개발연구 52 (" 996)pp247-266
24	경남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실태 에 관한 연구/ 하형진·천성문	1997	춘해간진논문집 9 (" 9712)pp219-259
25	폭력에 관한 이해 : 학교폭력(집단화된 선 배폭력)에 관한 한국문화적 해석/ 백혜명	1998	중앙대사회개발논총 18 (" 9812)pp309-332
26	또래중재인으로 왕따없앤다 : 미국의 학교 폭력·집단괴롭힘 해결 노하우/ 강영진	1999	474(" 993)pp386-397 0
27	상황에 따른 心理的·行動的 豫防과 處力 (完)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반응분석을 중심으로/ 김용균	1998	교육연구 351 (" 9810)pp117-119
28	청소년의 학교 폭력 동향과 모색 방안 / 전정태	1997	사회와교육 24 (" 972)pp205-220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29	인성교육 강화 및 선도위원회의 체계적 활동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오건길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91-98
30	집단 상담과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지도의 실제/ 최동규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82-90
31	NIE를 활용한 학교 폭력 예방 방안 연구 / 송종갑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65-73
32	학급자치 활동과 심성수련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지도의 실제/ 신임선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59-64
33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지도 과정을 통한 행동 수정 및 비행 예방/ 이금중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61-58
34	학급내 사회성 측정 및 그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이정령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36-43
35	부적응 행동 원인 분석을 통한 지도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 노무상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29-35
36	선택적인 인성계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권정순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23-28
37	學校内外 暴力實態와 豫防의 指導方案 / 손용호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18-22
38	학교폭력의 예방적 지도를 위한 사회 공동체 윤리의식 내면화와 생활지도의 과제 / 정원구	1998	부산교육 287 (" 9810)pp10-17
39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및 대책/ 이호분	1998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 989)pp147-149
40	조세형이 폭로하는 교도행정, 이것이 문제다 1 : 청송은 폭력학교/ 이강필	1998	162(" 981210)pp44-45
41	선배 몸종노릇하며 돈 뺏기고 몰매 맞아 : 학교폭력...여중생 내 딸 이렇게 당했다 / 이형삼 編	1998	뉴스플러스 158 (" 981112)pp54-55
42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이종복	1997	평택대논문집 92 (" 9712)pp135-156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43	상황에 따른 心理的・行動的 對處 5 :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과 반응분석을 중심으로 / 김용균	1998	교육연구 349 (" 988)pp116-119
44	상황에 따른 心理的・行動的 豫防과 對處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반응분석을 중심으로/ 김용균	1998	교육연구 350 (" 989)pp112-113
45	초등학교 학교 폭력 실태 분석/ 김종미	1997	초등교육연구 11 (" 9711)pp71-89
46	학교 폭력의 원인과 예방 지도/ 성익모	1998	한발교육 17 (" 985)pp152-157
47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반응분석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心理的・行動的 豫防과 對處 (上)/ 김용균	1998	교육연구 345 (" 984)pp92-95
4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송동호 외	1997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2 (" 9712)pp232-241
49	學校周邊暴力에 관한 研究/ 金忠男	1997	형사정책연구 31 (" 9710)pp67-90
50	학교폭력의 실태・원인 및 대처방안 / 표갑수	1998	청주대사회과학논총 18 (" 982)pp23-62
51	청소년 비행문제와 학교 생활지도 방안 :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윤정륜	1997	경북대학생지도연구 301 (" 9712)pp1-30
52	學校 暴力의 실태및 대처 방안 : 오늘의 청소년과 청소년 문화/ 김종기	1996	학교경영 98 (" 968)pp18-22
53	‘학교폭력’ 다르게 접근하기/ 강보길	1998	새교육 519 (" 981)pp184-187
54	학교폭력사고의 근절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검토 :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하운수	1997	부산교대초등교육연구 10 (" 9712)pp57-98
55	유인중 서울시 교육감 인터뷰 학생 폭력 잡으려다 학교 교육 실종될 판/ 宋 俊	1997	405(" 97731)pp14-15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56	부모 선생님이 폭력 가르친다? : 가정 학교 서 교육수단으로 매질 남용...청소년들 자랄 때부터 보고배워 폭력성 부추겨/ 이형삼	1997	뉴스플러스 91 (" 97710)pp32-33
57	早期豫測을 통한 學校暴力의 豫防에 관한 研究/ 鄭洪培	1997	서울시교육연구원교육논문 집 19(" 9712)pp268-278
58	교육개혁과 학교폭력 예방/ 김준호	1997	새교육 518 (" 9712)pp132-137
59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예방/ 李時炯	1997	대한의사협회지 453 (" 9710)pp1268-1273
60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박영관 外	1997	소아과 4010 (" 9710)pp1376-1385
61	學校暴力의 實態와 對策/ 오수성 外	1997	학교경영 1011 (" 9711)pp21-80
62	학교폭력 근절대책 運營上의 問題點과 개 선방안 (下)/ 안상훈	1997	교육연구 339 (" 9710)pp88-90
63	예수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박옥식	1997	기독교사상 464 (" 978)pp125-128
64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권이종	1997	교육사회학연구 73 (" 979)pp81-101
65	학교폭력의 근절대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안상훈	1997	교육연구 338 (" 979)pp17-20
66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박성수	1997	국회보 369 (" 977)pp112-116
67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金善姬	1996	강남대논문집 사회대학 27(" 9612)pp231-266
68	學校 暴力의 예방과 指導方案/ 이기우	1997	학교경영 104 (" 974)pp37-41
69	학교 주변 폭력의 社會的 원인/ 김준호	1997	교육연구 333 (" 974)pp88-91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7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준호	1996	치안정책연구 4 (" 965)pp18-37
71	學校暴力의 問題點에 대한 考察/ 李泰彦	1995	부산외대법학연구 7 (" 9512)pp9-24
72	때리는 아이,맞는 아이어떻게 볼 것인가?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부쳐/ 김은경	1997	39(" 972)pp22-29
73	學校 暴力의 예방과 대책 (上)/ 전정태	1997	학교경영 102 (" 972)pp90-93
74	學校 暴力의 예방과 대책 (下)/ 전정태	1997	학교경영 103 (" 973)pp72-76
75	학교 주변 폭력의 사회적 원인/ 김준호	1997	교육개발 105 (" 971)pp51-54
76	학교폭력과 폭력의 사회화/ 김은경	1997	교육개발 105 (" 971)pp42-45
77	근절되어야 할 학교 내·외 폭력/ 오명식	1997	교육개발 105 (" 971)pp36-41
78	일본의 학교 폭력 발생 추세 및 대응 사례 / 박영숙	1997	교육개발 105 (" 971)pp31-35
79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준호	1996	치안문제 179 (" 9611)pp31-43
80	학교폭력, 그 원인과 대책은?/ 이창연 外	1996	충북교육 123 (" 9612)pp64-81
81	학교주변 폭력문제와 대처방안/ 주희종	1996	여의도정책논단 12 (" 9612)pp186-193
82	현장에서 본 학교暴力과 學校敎育/ 이호연	1996	학교경영 912 (" 9612)pp85-89
83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정진곤	1996	교육월보 179 (" 9611)pp56-59
84	학교내외 폭력의 실상과 대처방안/ 허남원	1996	강원교육 152 (" 966)pp32-35

	기사명/저자명	발행년도	수록잡지명
85	오늘의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차경수 외	1996	서울교육 144 (" 966)pp23-77
86	학교暴力 豫防 지도방안/ 문희봉	1996	교육연구 323 (" 966)pp98-103
87	學校暴力의 實態와 對策/ 羅炳賢	1996	입법조사연구 238 (" 964)pp184-223
88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과 대책/ 김준호	1996	치안문제 174 (" 964)pp28-33
89	무엇이 학교폭력을 부르는가/ 우수명 외	1996	새교육 497 (" 963)pp23-51
90	학교폭력 근절,잘 되고 있나/ 김준호	1996	국회보 352 (" 962)pp75-80
91	학교폭력!피해자는 누구이고,가해자는 누구인가/ 주점란	1996	새교육 496 (" 962)pp97-101
92	학교 폭력의 현주소/ 김준호	1995	교육개발 98 (" 9511)pp19-21
93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과 대책/ 김준호	1995	정책논단 여의도연구소 5 (" 9511)pp34-40
94	학교 폭력 - 그 원인 과 대책 特輯 / 이재창	1985	8(' 857)9~16
95	學校暴力 의 背景 과 對策方向 特輯 / 朴俊熙	1984	354(' 844)34-41
96	學校 에서의 暴力 과 體罰 特輯 / 朴德圭	1984	354(' 844)42-49
97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대책/ 노안영	1997	전남대학생활연구 29(9712)pp93-128
98	학교 폭력 근절대책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안상훈	1996	교육논문집 18(9612)pp127-137